

2017 하반기 평택학 학술포럼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자료집

일시

12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3층)

목 차

■ 2017 하반기 평택학 학술포럼 개요	2
■ 제1주제 -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 김해규	5
■ 제2주제 - 평택은 국가 안보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 박성복	19
■ 제3주제 - 구휼,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 생산 기반의 구축 / 장연환	31
■ 제4주제 - 1920년대 평택지방의 항일독립운동 / 김방	41
■ 제5주제 -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평택 교육의 다면적 전망 / 서승갑	63
■ 토론	83

2017 하반기 평택학 학술포럼 개요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1. 사업 목적

- 지역 향토사연구가와 전문가들이 평택과 관련한 소주제를 선정하여 향토자료를 축적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사 연구의 토대가 되는 심포지엄 마련
- 우리시 향토사 연구의 현재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회차별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하고 세부 연구 및 토론의 자리를 갖는 연구회로 만들
- 평택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지나온 발자취, 일대기 등을 역사적, 향토사적으로 집대성하는 자리를 마련해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킴
-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자산을 미래적 가치로 계승,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를 살피어 평택의 비전을 제시

2. 사업개요

- 1) 사업명 : 2017 하반기 평택학 학술포럼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 2) 일 시 : 2017년 12월 9일(토), 오후 3시
- 3) 장 소 :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
- 4) 주 최 : 평택시
- 5) 주 관 : 평택문화원

3. 학술대회 세부 내용

- 행사 사회 : 오민영 /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 토론 사회 : 오중근 / 평택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학술대회 시간계획

식순	내용	대상자
개회	개회 및 내빈소개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인사말	인사말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축사	축사	내빈
발제1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발제2	평택은 국가 안보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발제3	구휼,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생산 기반의 구축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발제4	1920년대 평택지방의 항일독립운동	김방(국제대학교 교수)
발제5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평택 교육의 다면적 전망	서승갑(동서울대학교 교수)
폐회	폐회 및 정리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여 백

〈제1주제〉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김해규 / 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여 백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김 해 규 / 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목 차

1. 머리말
2. 근대도시의 발달과 중심지 이동
3. 1920년대 청년운동의 전개
4. 농민운동과 수진농민조합
5. 일제하 근대교육운동
6. 맺음말

1. 머리말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은 3.1운동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자강과 민족의 실력양성을 목표로 전개되었던 개화파 중심의 사회운동은 한일병합 과정에서 반성과 방향전환을 모색하다가, 3.1운동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실력양성 방향으로 다시 선회했다. 일명 민족주의계로 분류하는 이들은 1920년대 민중계몽과 문맹퇴치, 근대교육실시, 경제적 자립운동, 조선학운동 등으로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선 실력양성 후 투쟁을 통한 독립쟁취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민족주의계는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주의 노선과 비타협주의 노선으로 나뉘었다. 비타협주의자들은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했는데 이로서 탄생한 단체가 신간회다.

3.1운동 이후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었다. 사회주의운동은 1917년 러시아사회주의혁명과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달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다양한 노선을 지향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층의 입장에서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하여 계급해방을 달성하고, 한편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족해방을 달성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이룩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은 사회운동의 선진지역은 아니었지만 철도를 중심으로 근대도시가 발달하고 서울이나 수원과 교통이 편리한 이점으로 일찍부터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평택지역 사회운동은 청년운동을 모태로 하여 교육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사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가운데 가장 활발하고 선진적인 것은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이었다. 필자는 1920, 30년대 평택지역 사회운동의 조건을 살펴보고 부르주아 청년운동으로 시작한 청년운동이 어떻게 부문별운동으로 발전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다.

2. 근대도시의 발달과 중심지 이동

평택시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구릉이 낮고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서쪽에는 아산만이 있고, 내륙으로는 안성천, 진위천을 중심으로 수 십 개의 하천이 발달하였다. 근대 이전만 해도 하천 좌우로 저습지가 발달하고, 하천을 통해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유입되어 황무지나 간석지가 많았으며 수해(水害)와 염해(鹽害), 한해(旱害)의 피해가 잦았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력이 매우 낮았으며 인구도 적었다.

평택지역은 근대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철도와 도로 같은 근대적 교통망이 형성되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대한제국시기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은 안성천을 경계로 경기도 진위군과 충청도 평택군으로 나뉘었고, 진위천 서쪽은 경기도 수원군 영역이었다. 지역의 중심은 진위군은 진위면 봉남리, 평택군은 팽성읍 객사리였으며 서평택지역은 뚜렷한 중심개념이 없었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 개통은 평택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근대도시가 발달하고 1920, 30년대가 되면 중심지까지 이동했다.

또 신 중심지로 부상한 평택을 중심으로 수원헌병대 평택분견대¹⁾를 필두로 1914년 병남면 의용소방대가 발대했으며, 1918년 1월 1일에는 경성지방법원 평택출장소²⁾가 개소했다. 1907년에는 평택역전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한성공동창고(주) 평택지점(상업은행)이 설립되었다³⁾. 1914년에는 평택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⁴⁾, 같은 해 미상조합(米商組合)도 창립되었다.

근대도시의 중심에는 일본들이 집단 거주했다. 1924년 통계⁵⁾에 따르면 진위군의 일본인은 656명으로 이었고 이 가운데 412명이 평택역전에 거주했다. 일본인 회사도 1906년에 설립된 대한무역상사(大韓貿易商社)⁶⁾를 필두로 진위흥농(주), 홍익식산(주), 수륙물산 등 여러 개가 존재했다. 일본인 거류지 서쪽에는 평택장과 같은 조선인 재래시장도 발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정리역전도 비슷했다. 근대도시의 발달로 평택역전 앞과 서정리역전 앞은 일제강점기 정치, 경제, 상업, 문화 뿐 아니라 각종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구 중심은 쇠퇴했다.

3. 1920년대 청년운동의 전개

청년운동은 191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1920년대 초반에는 3.1운동과 러시아사회주의혁명의 영향을 받아 여러 사상단체들이 조직되었다. 1924년에는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청년총동맹이 창립되면서 조직과 이념을 토대로 하는 청년운동으로 발전했다. 1927년에는 조선청년총동맹의 신운동방침을 계기로 선도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점차 계층운동으로 변화했다. 그러다가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는 고양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동운동, 농민운동, 사상운동 등 부문별 운동으로 발전했다.

평택지역 청년단체는 1917년(대정 6년) 처음 조직되었다가 3.1운동을 계기로 해산하였다.⁷⁾ 3.1운동 뒤에는 서울과 수원,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항일민족운동에 나서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사립 중앙학교 학감으로 있던 안재홍이 참여했던 청년외교단⁸⁾과 대한애국부인회⁹⁾, 이일영, 정창수, 윤용주가 참여했던 조선민족대

1) 수원헌병대 평택분견대는 1919년 경찰행정 독립에 따라 진위군 평택경찰서로 독립하였고, 1938년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바뀔에 따라 평택군 평택경찰서가 되었다.

2) 경성지방법원평택출장소는 1946년 치안군 심판소를 병설하였으며, 1948년 정부수립 후 서울지방법원 평택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59년에는 평택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79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가 되었다.

3)《조선총독부통계년보》1910년 제194표

4)《동아일보》1921년 4월 8일자

5)《동아일보》1924년 7월 9일 진위군 면 별 호구 수

6)《대한매일신보》1906년 11월 22일

7)《동아일보》1927년 12월 12일자 순회방담

8)《동아일보》1920년 4월 24일자

동단¹⁰⁾ 활동, 황로태, 이민중, 이기혁 등의 조선독립단¹¹⁾, 안구현, 이택화, 오창선, 이조현 등의 임시정부 군자금모금활동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부문별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0년 이후에는 평택역전과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지국이 설립되었고, 청년단체를 비롯하여 부문별 사회운동단체도 설립되었다.

청년단체로 가장 먼저 조직된 것은 1921년 5월 15일에 결성된 평택청년체육구락부다.¹²⁾ 평택청년체육구락부는 체육, 총육, 지육발전을 표방하였으며, 주요 간부는 부장 유창근, 부부장 신찬우, 간사 장윤식, 김정한, 서기 이병갑, 회계 박노수였다. 이들은 신찬우나 류창근, 장윤식처럼 지주(地主)로 근대교육을 받았고 동아일보 평택분국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명망과 경제력이 있는 유지층이었다.¹³⁾

평택청년체육구락부는 1922년 진위청년회로 개편되었다. 명칭이 진위청년회로 바뀌었지만 단체의 중심인물이 청년체육구락부와 비슷했으며 민립대학설립운동과 강연회¹⁴⁾, 운동회¹⁵⁾, 야학부 설립¹⁶⁾ 을 결의하는 등 민족주의계의 실력양성운동을 답습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진위청년회는 1924년을 전후하여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청년회 내부에서 이견과 사상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으며, 정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청년회 내부의 갈등은 1923년 3월 24일에 있었던 전조선청년당대회¹⁷⁾ 참가 결의가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지역유지층은 점차 탈퇴하고 청년회는 침체기에 빠졌다.

진위청년회가 새롭게 재편된 것은 1927년 전후다. 1927년 4월 23일 자 《동아일보》의 순회방담에도 ‘세상이 변해가면서 우면상태에 빠져 유야무야 지내오던 진위청년회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진위청년회가 이 시기에 새롭게 각성하고 일어선 것을 말해준다. 1926년 9월의 혁신총회는 진위청년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총회에서 진위청년회

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9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1)《매일신보》, 1921년 5월 2일자

12)《동아일보》 1921년 5월 15일자

13)《동아일보》 1920년 5월 6일 및 1921년 2월 28일 류창근은 동아일보 평택분국 분국장이었고 장윤식은 기자였다.

14)《동아일보》 1923년 7월 21일자

15)《동아일보》 1923년 2월, 1923년 6월 6일 춘계육상운동회 참석인원은 6백 명에 달하였다.

16) 1924년 5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청년회 내에 야학부설치가 결의되었다. 야학부 설치의 목적은 ‘귀인 교육’에 두었고 교사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야학부 설치는 청년회의 내부사정으로 당장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1928년이 되어서야 설립되었다.

17) 1923년 3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조선청년당대회는 사회주의 단체인 서울청년회가 주도한 대회였다. 이 대회는 장덕수 등이 주도한 우파민족주의 계열의 조선청년연합회를 무력화시키고 청년운동의 방향을 사회주의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청년당대회를 계기로 실력양성론을 주창하였던 민족주의 우파의 조선청년회는 급격히 영향력을 잃었고 1923년 4월에는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었다.

당시 평택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진위청년회 정기총회에서는 민립대학 후원 건, 도서관 설치 건, 회관 설치에 관한 건, 임원개선 건과 함께 전조선청년당대회 참가 보고를 하였는데 대회참가 및 향후의 활동을 놓고 갈등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민두, 정인창, 등 새로운 인물들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회장제를 집단지도체제인 위원제로 바꾸었으며, 선언과 강령을 쇄신했다.¹⁸⁾ 또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중강연을 개최하고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소인극 공연과 발전기금으로도 500원을 모금했다¹⁹⁾. 이밖에 월남 이상재선생 사회장 참여와 중선정구대회 인수를 모색하고, 회관신축을 추진했으며,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의 계급적 각성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²⁰⁾한 것은 진위청년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진위청년회의 방향전환은 지역 유지층의 반발로 제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

평택지역 청년운동은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내외적 혁명적 분위기가 고양되면서 청년단체들이 조선청년총동맹을 해소하고 혁명적 농민, 노동운동에 적극 가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진위청년회도 1930년 10월 제9회 정기총회²¹⁾를 통하여 진위청년동맹으로 혁신하고 집행위원장으로 안충수를 선출하여 진보세력의 조직 장악력을 높였다. 또 1930년대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을 주도한 리홍종, 남상환, 홍선유, 김학룡²²⁾과, 중앙과 평택지역을 오가며 활동했던 조선공산당협의회 중앙부 심인택, 3.1운동을 주도한 뒤 지역사회운동가로 성장한 안충수²³⁾,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영상같은 인물들이 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이들은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나 농민운동에 적극 개입하고 사상조직을 이끌며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했다. 또 서정리역전에서는 남상환²⁴⁾과 김영상이 중심이 되어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리노동청년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서정리노동조합과 수진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1930년대 평택역전에도 진위청년동맹의 핵심간부들을 중심으로 평택노동청년회가 조직되었다. 평택노동청년회를 주도한 것은 홍선유와 김학룡이었다. 홍선유, 김학룡은 평택노동청년회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였다.²⁵⁾ 평택노동청년회는 1932년 9월 평택노동협의회로 발전했다. 평택노동협의회의 중심인물은 수진농민조합사건과 평양사범적화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종필과 이희수, 김창기 등이었다.²⁶⁾ 1932년 3월에 진위

18)《동아일보》1927년 4월 23일자

19) 당시의 모금활동에는 초기 청년회의 주축이었으며 대표적인 지주 또는 자본가들이었던 이성열, 이명환, 성주한, 윤응구, 신찬우, 박원용 등이 적극 호응했다.

20) 1927년 3월 5일 평택면 평택리 김영주의 집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무리한 소작권 이동에 대하여 박영환, 김영주를 조사위원으로 파견할 것’, ‘재만동포 박해에 대한 선전문 배포 및 시위운동 전개’, ‘무산아동교육과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진척학원 설립 결의’는 진위청년회의 성격 변화를 보여준다.

21)《동아일보》1930년 10월 30일자

22) 홍선유와 김학룡도 사회주의자로 판단된다. 홍선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김학룡은 함경도 명천공산당재건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인물이다. 이들은 1930년 7월 노동조합활동과 사회주의의 사상을 선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23) 안충수는 3.1운동 당시 3월 11일 평택역전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른 인물로 1930년 전후에는 과수농업전문가, 동아일보 평택지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4) 남상환은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위원에 선출된 사회주의 활동가로 경부선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리노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수진농민조합 결성을 주도하여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미결수 상태에서 병을 얻어 병보석으로 석방된 뒤 사망했던 인물이다.

25)《동아일보》1930년 7월 14일

26) 평택노동협의회에서 평택지역의 중심인물 홍선유, 김학룡이 제외된 것은 1930년 8월 평택노동청년

사회단체회²⁷⁾가 사회단체 연합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택지역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청년회 중심에서 탈피하여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한편에서는 사상단체들이 활동했다.

4. 농민운동과 수진농민조합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은 지주와 마름의 착취와 부당한 소작관행 같은 봉건적이면서 식민지적인 수탈에 대하여 소작쟁의로 대항하였다. 소작인회나 소작조합을 결성하여 생존권 투쟁 형태로 전개되던 농민운동은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 1927년 9월 조선농민총동맹과 같은 합법적 농민조직을 결성되면서 조직적으로 연대하였다. 합법적 농민조직들은 소작료문제, 부당한 소작권이동, 동척이민 철폐와 같은 농민층의 생존권 문제와 야학, 독서회, 소인극 등 농민층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려는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농민운동은 1930년 전후 코민테른의 지시와 운동조건이 변화에 따라 합법적 운동을 청산하고 비합법적이고 혁명적인 적색농민조합 건설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의 혁명적 농민조합들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하였다. 또 직업적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침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다가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성장한 농민출신의 활동가들이 이들과 연대하고 결합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은 3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나 일본인 지주, 일본인 회사지주, 동양척식(주) 농장이 많고 토착지주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또 일본인 농업이민자들도 많아서 조선농민들과 갈등도 심했다.²⁸⁾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자작 겸 소작농이거나 순 소작농이었다. 이웃한 안성군의 경우 1920년대 계층별 인구수에서 지주 376호(3%), 자작 505호(4%), 자작 겸 소작 3,876호(31.3%), 소작 6,947호(56.1%), 기타 5.6%²⁹⁾이었는데, 안성지역보다 훨씬 여건이 나빴던 평택지역은 자작 겸 소작이거나 순 소작농의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1938년 5월에 작성된 경기도지주명부³⁰⁾에 따르면 소작료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논농사의 경우 소작농에게 유리했던 정조법(定租法)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 타조법에 의해 소작료가 징수되었다.³¹⁾ 1년 단위의 기한부소작제에 따른 무리한 소작권 이동이나 지나친 임지료(賃地料) 인상³²⁾도 빈농들을 괴롭혔다. 이 같은 조

회에서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조선중앙일보》1932년 3월 14일자

28) 차덕석(고덕면 해창4리 거주), 2003년 인터뷰

29) 김해규,〈일제하 안성군의 사회운동〉,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0) 김성호, 앞의 자료

31) 김성호, 앞의 논문

32)《동아일보》1934년 1월 30일. 경기도 진위군 고덕면 울포리의 일본인지주가 임지료를 갑자기 7배로 인상하자 전차지인이 결속하고 끝까지 이에 불응키로 결의하였다.

건 때문에 1920년대부터 소작쟁의가 나타났으며, 1930년대에는 전 지역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소작쟁의가 빈번했지만 소작인조합이나 농민조합같은 조직적 대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평택지역에 농민조합이 조직된 것은 1930년대 초 중앙에서 활동하던 심인택, 남상환 등이 평택지역으로 내려오고 이들에 의해 김영상 같은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났다. 특히 농총중앙위원으로 활약했던 남상환은 서정리역전으로 내려와 진위청년회에 관여하는 한편 서정리역전에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리노동조합 같은 진보적 청년, 노동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930년 3월 야막리의 박규희 등 평택북부지역의 활동가를 규합하여 ‘진위농민조합’을 결성했다.³³⁾ 또 같은 해 3월 28일에는 평택지역과 인접한 화성시 양감면의 장주문과 이원섭 등을 포섭하고 단체의 명칭을 ‘수진농민조합’으로 개명한 뒤 본부를 오산에 두었다. 이들은 강령에서 농민의 이익획득과 생활향상을 최우선에 두었으며, 문맹퇴치와 의식적 교양, 상호부조를 통한 확고한 단결도모와 같은 농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제시했다. 또 고덕면 울포리 출신으로 조선공산당재건 적색농민조합조직준비위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던 심인택³⁴⁾과, 수원군 양감면(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출신으로 수원청년동맹 간부, 신간회 전체대회 중앙집행위원, 조선일보 수원지국장, 카프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던 박승극과 연대하여 고덕면 울포리와 화성시 양감면에 지부설치를 시도했다.

수진농민조합은 창립 후 빈농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민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노력을 했다. 특히 쟁의부장 남상환을 중심으로 진위군과 수원군 일대의 소작쟁의와 무리한 소작권이동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 개입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였다.³⁵⁾ 1931년 11월에는 진위군 서탄면 금각리와 황구지리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했을 때에는 장주문, 이원섭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쟁의부장 남상환이 주도하여 소작쟁의를 일으킨 뒤 지주(地主), 사음(舍音)과 담판하여 농민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도록 하였다.³⁶⁾

33)《동아일보》 1930년 3월 13일 김창순, 김준엽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는 조명재 등 8명이 오산 연합회관에서 수진농민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고 서술하였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34) 심인택은 고덕면 울포리 양성말 출신이다. 경성제1고보와 보성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했다. 1920년대 후반 학교를 중퇴한 뒤에는 영등포에서 미곡상과 중외일보 영등포지국을 운영했고, 면(面)·리(里) 단위에 침투하여 암약하였다. 1930년에는 ML파의 중심인물 이종림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협의했으며, 권린갑, 이진일 등과 함께 북경에 근거를 둔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와 프로핀테른 9월 테제에 따라 조선공산당 재건 적색농민조합조직준비위, 공산청년동맹준비위 결성에 앞장섰다. 1931년에는 탄광노동자들로 혁진회를 조직하였고, 그 해 대구에서 열린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에 평안남도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 평양지역에 침투하여 공장노동자들과 평양숭실학교 학생들을 결합하여 공산청년동맹을 조직하려다 발각되었으며,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1932~35)’에 연루되어 2년형을 언도받았다. 1935년에 있었던 선고공판 당시 조선중앙일보에는 심인택을 ‘조선공산당 중앙부’라고 표현하였다. 일제강점기 심인택은 1931년 5월 수진농민조합고덕지부 창립에관여하였으며, 1932년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으로 수배중일 때 잠시 숨어 지냈다. 해방 후에는 평택지역으로 내려와 남로당 평택위원장 등을 지내며 각종 좌익사건을 주도하였고, 1947년에는 8.15폭동사건을 일으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35)《중외일보》 1930년 5월 9일

36)《조선중앙일보》 1931년 11월 30일

수진농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했다. 평택경찰서를 동원하여 남상환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서정노동청년회와 서정리청년동맹에 대하여 월례회를 금지하고 각종 활동을 방해했으며,³⁷⁾ 남상환이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회에 다녀온 것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수원소년동맹 양감지구 정기대회에서 서정리소년동맹에서 보낸 축문(祝文)이 불온하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밖에도 서정리노동청년회 간판에 그려 넣었던 마크가 불온하다며 경찰서에 소환하여 심문한 것,³⁸⁾ 남상환과 김영상을 금각리 소작쟁의 개입혐의로 검거³⁹⁾한 것, 그리고 오산사회단체연합회 집행위원이며 수진농조집행위원장이었던 박규희를 격문내용이 불온하다며 검거하였다가 석방하고⁴⁰⁾ 가택수색 한 것⁴¹⁾, 김영상 등 서정리노동청년회원 3명을 연행하여 심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럼에도 수진농조의 활동이 활발하자 1932년 12월 핵심간부 8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남상환, 박승극⁴²⁾, 김영상, 장주문, 이원섭⁴³⁾을 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 특별공판에 회부하여 와해를 시도했다.⁴⁴⁾ 결국 핵심 활동가들이 1년 반을 미결수 상태에 감금되면서 수진농조는 견디지 못하고 와해되었다. 조직이 와해되자 일제는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했지만 남상환은 감옥에서 얻은 폐결핵으로 사망했다.⁴⁵⁾

5. 일제하 근대교육운동

평택지역은 1899년 진위공립소학교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인 공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학교시설도 미비하고 교사도 자주 바뀌면서 안정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진위지역의 인사들은 근대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공립학교 유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야학이나 강습소를 설립하여 실력양성을 꾀하였다.

평택지역 최로의 공립학교는 1899년에 설립된 진위공립소학교지만 공립소학교가 설립되기 전인 1898년 11월부터 진위군수와 지역 유지들에 의해 진문소학교가 개교했고 이것을 토대로 진위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초기 진위공립소학교는 학교 건물이 없어서 객사나 향교를 빌려 교육하였고 재정적 어려움과 잦은 교사 교체로 정상적

37)《동아일보》 1930년 7월 10일

38)《중외일보》 1930년 8월 10일

39)《동아일보》 1931년 12월 2일

40)《조선일보》 1930년 11월 6일

41)《동아일보》 1931년 11월 5일

42) 박승극은 수원사람으로 1920년대 후반 수원청년동맹의 간부를 지냈으며 1929년 조선청년동맹 정기대회 해금교섭위원이었다. 1931년에는 신간회 전체대회 수원대표로 참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출되었으며 수원적색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였다. 수진농조가 결성될 당시 조선일보수원지국장이었다.

43) 김영상은 고덕면 두릉리 계루지 마을 사람으로 부친은 동척농장 농감이었고 직업은 동아일보 고덕분국장이었으며, 장주문은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사람으로 농민이었다. 이원섭은 양감면 용소리에서 서당 훈장을 하였는데 상당한 식견을 갖추었던 인물이었다.

44)《동아일보》 1932년 12월 24일

45)《조선중앙일보》 1933년 4월 21일

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했다.⁴⁶⁾ 1913년에는 팽성읍 객사리(읍내리)에 평택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고 이것이 1917년 경 평택역전 부근으로 이전하면서 나중에 평택성동초등학교가 되었다. 1910년대 말에는 일제가 1면(面) 1교(校)제를 표방하며 1922년 5월 안중공립보통학교, 10월에는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했다.

1920년대에는 일반대중들의 근대교육 요구가 거셌다. 지역 유지층들도 이에 호응하여 공립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강습소와 야학을 설립하였다. 1926년 9월에는 청북면장 신찬우의 노력으로 청북공립보통학교가 개교했다.⁴⁷⁾ 비슷한 시기 병남면 통북리에는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평택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다. 평택심상소학교는 보통과 외에도 고등과를 개설하여 교수하였다. 1927년에는 날로 심해지는 입학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독부가 진위 지역에 보통학교를 설립한다는 발표가 있자 그 해 4월 진위군 부용면과 서면의 유지(有志)들을 중심으로 기성회를 결성하고 유치운동을 전개했다. 결과 1927년 10월 13일 부용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⁴⁸⁾ 이어 1929년 12월에는 포승읍 내기리에 4년제 내기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고, 1930년 12월에는 서탄공립보통학교, 1930년 8월에는 고덕공립보통학교가 개교했다. 이들 공립보통학교 설립은 지역유지들이 유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교 부지를 기부하고 기부금을 모금한 뒤 총독부와 해당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⁴⁹⁾

1935년 평택지역은 1면(面) 1교(校)를 달성했다. 하지만 입학정원이 모자라고 4년제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취학대상아동 2,300명 가운데 보통학교 입학정원이 560명에 불과하여 입학난이 매우 심각했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증축운동과 함께 야학과 강습소를 설립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예컨대 1936년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유지층의 성금 1만 5천원과 재학생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성금으로 6학급을 증축한 것과⁵⁰⁾, 평택성동공립보통학교가 성주환, 민광식 등 유지층의 기부와 정부 보조금으로 현재의 위치에 학교를 이전하고 학급을 증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야학·강습소운동은 지역유지층과 사회운동단체, 근대교육을 받은 계층들이 민중계몽과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야학은 한글과 일본어 읽기와 쓰기, 산수 등을 가르쳤지만,

46) 진위초등학교 편, 《진위백년사》, 2000

47) 청북초등학교 편, 《청북교육문화사》, 2009

48) 진위향교지편찬위원회, 《진위향교지》, 2007

49) 서탄공립보통학교는 학교설립비가 1만원이나 소요되어 추진이 더뎠지자 스스로 기부금 4천원을 모금하고 지방비 보조 6천원을 보태 개교했고, 고덕초등학교도 해창리 출신의 송주헌 면장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들이 보통학교유치운동을 전개하여 모은 기부금 3천원에 지방비 보조 6천원을 합하여 유치하였다.

50) 동아일보 1936년 3월 5일 자 기사에는 '진위군은 소화9년에 1면 1개교가 달성되었지만 절반가량이 4년제이고, 아직도 취학대상아동이 2300여 명인데 반하여 취학가능인원은 560여 명에 불과하여 학교 증축과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데 서정리공보고는 유지들의 성금 15,000원으로 6학급 증축을 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위 금액 중 보조금은 27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2700원은 재학생이 5원씩, 신입생은 4원씩 내게 하여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학비가 없어 교문에서 쫓겨나 돌아오거나, 1개월 수업료 450전도 내지 못해 허덕이는 학생이 대부분인 마당에 무리한 계획으로 다시 고찰해야 한다'는 비판적 내용이 게재되었다.

강습소는 일반학교와 같은 교과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립학교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가난하여 근대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학·강습소는 적은 비용으로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평택지역의 사립교육은 1898년 진문소학교가 효시이고 1904년 팽성읍 남산리의 강난수씨 사랑방에서 시작된 강습소가 그 뒤를 잇지만 구체적 사료가 부족하고, 을사조약 뒤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설립된 학교들이 본격적인 사립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계몽운동 시기의 사립학교로는 고덕면의 이범철 형제가 세운 진흥의숙, 1907년 청북면 백봉리의 서상천이 세운 수성학교, 1906년 성공회 객사리교회 김인순 전도사가 설립한 신명강습소, 1907년 진사 김춘희가 합정동 조개터에 세운 동명의숙 있다. 이들 학교는 교과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립소학교와 비슷한 내용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이며, 동명의숙의 경우에는 합일병합이 가까워오자 발 빠르게 일본어수업을 실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야학·강습소 설립은 3.1운동 이후 활발해졌다. 당시 민중들의 근대교육요구가 거셌을 뿐 아니라 유지층의 입장에서 근대학교 설립이 지역적 신망을 얻는 방법이었고 일제의 탄압 없이 실력양성운동에도 일조할 수 있어 많은 수의 지주 자본가층, 지식층들이 근대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지역유지들이 세운 야학·강습소로는 1920년 배재고보 출신의 최기환 등이 서탄면 회화리에 세운 회화강습소, 1922년 평택장로교회에서 세운 은평강습소, 1923년 현덕면 신왕리에 유인(柳寅)이 세운 신왕리강습소, 1923년 청북면 율북리의 대지주 양재근이 세운 일신강습소, 1924년 서탄면장 이필성의 발기로 세운 진서강습소가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야학·강습소운동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다. 진위청년회와 같은 사회운동단체가 무산아동의 근대교육을 위해 진청학원⁵¹⁾을 설립하고 무료교육을 실시했으며, 봉남리의 구씨학원(금릉학원) 등 많은 수의 학교들이 무산아동의 무료교육을 통해 민중들의 계몽과 의식강화를 도모했다. 1930년대에는 평택지역에 가장 많은 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근대 이후 서울 등으로 유학갔던 지식층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 민중계몽과 근대교육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민중들의 근대교육 열망은 날로 높아가는데 공립학교의 수용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1931년 오성면 양교리에 황로식이 세운 신흥학원(양교리강습소)은 실질적으로는 서울로 유학하여 보성전문을 졸업한 황로식의 아들 황옥재가 운영했다. 1935년 보성전문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했던 서병창이 오성면 숙성리에 세운 서일학원, 포승면장을 지낸 이흥서의 아들 이민영이 포승읍 방림리에 세운 대덕학원, 1932년 양해동, 김덕래, 전규영이 포승읍 원정리에 세운 중성학원, 1935년 양창석과 박필훈이 청북면 율북리에 세운 율북강습소, 1935년 최남순이 송탄면 가재리에 세운 가재리강습소, 1930년 정운봉

51) 청년회원이었던 보성전문 학생 박상만과 김준석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학비를 절약한 돈으로 직접 청년회관을 개조하여 교실을 만들고 물품을 구입하여 무산아동을 교육하였다. 교사는 청년회원들 가운데 경성제대 학생 김귀갑, 양정고보생 김준석 등 학생들이나 공무원, 일정한 지식을 갖춘 일반인들이 무보수로 교수하였다. 무산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비도 면제되었고, 주간 뿐 아니라 야학부와 부인반까지 운영되었다.

등이 평성읍 도두리에 세운 도청강습소(도두리강습소)가 그와 같은 학교였다. 이밖에도 평택지역 곳곳에는 수많은 강습소와 야학이 설립되었으며 배움에 굶주린 인재들에게 근대교육을 실시했다.

전시체제기에 접어드는 1935년부터는 곳곳에 간이학교와 국어(일본어)강습소가 설치되었고 기존의 강습소들은 문을 닫거나 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 이것은 전시체제기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하려는 일제의 정책 때문이며 전쟁 막바지 군사교육의 필요성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했다.

6. 맺음말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사회운동은 경부선 평택역전과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에는 평택역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1930년대 초부터 서정리역전에서도 사회운동이 활발했다. 1920년대 사회운동은 평택역전의 진위청년회가 선도했으며 1920년대 후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소년운동, 형평사운동 등 부문별 운동을 확장되었다.

교육운동은 청년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 민중들의 근대교육요구에 따른 지역 유지층과 지식인층의 호응,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호응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관료들과 지역유지층은 대체로 공립학교 유치운동에 앞장섰고 몇몇 유지층은 강습소 설립에도 나섰다. 다수의 지주들은 야학이나 강습소설립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부터 그동안 성장한 지식인층들을 중심으로 민중계몽과 민중의식 각성, 무산자들의 근대교육을 통한 계급적 각성 등을 목적으로 야학이나 강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사례가 늘었다. 일제강점기 이 같은 사회운동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의 희생과 나눔, 상생의 정신을 동반한다. 가진 자의 나눔과 희생,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의 관용의 미덕이 희미해진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할 아름다운 정신이다.

■ 참고문헌

1.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2. 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6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9, 2001
4.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편,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1995
5.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6. 김성호,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농지개혁사편찬자료》, 1985
7.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8. 김해규, 《평택역사산책》, 평택시민신문사, 2013
9. 김해규 외,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문화원, 2015
10. 김해규, 〈일제하 안성군의 사회운동〉,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1. 김해규,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안재홍과 평택 항일운동 심층연구》, 선인, 2014
12. 청북초등학교 편, 《청북교육문화사》, 2009

〈제2주제〉

평택은 국가 안보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박성복 / 평택시사신문 사장

여 백

평택은 국가 안보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박 성 복 / 평택시사신문 사장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위치
3. 평택의 역사인물 이대원 장군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4. 나가는 글

1. 들어가는 글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이 말은 프랑스어로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 의무’로 해석된다. 이 말의 연원은 ‘혜택 받은 자들의 책임’ 또는 ‘특권 계층의 숭선수범’이란 뜻으로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 실천에 대해 로마 귀족이 가졌던 기본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서구 사회의 귀족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으로 전승된 것으로 주로 서양의 전유물처럼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정치인·고위 공직자·사회를 이끌고 있는 각계 지도자들이 자원 봉사·기부 등을 통해 활발히 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의 상징어로 인식된 ‘노블리스 오블리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주최씨’이다.

흔히 ‘최부잣집’으로 널리 알려진 경주최씨는 전통적으로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하였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고 한다.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으며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지 않도록 했다.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을 입게 하였고 100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다. 바로 최부잣집의 전통이었으며, 가진 자의 실천적 삶이었다. 최부잣집은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지원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또 다른 상징이 평택시 진위면의 경주이씨였다. 진위 경주이씨는 한말과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문이며 그 상징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신흥무관학교이다. 신흥무관학교의 역사는 바로 진위 경주이씨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진위에 자리 잡은 경주이씨는 이항복의 후손으로 이세필 대에 진위면 봉남리 아곡마을에 터를 잡고 세거했다.

이세필-이태좌-이종성-이유승으로 이어지는 가계는 이유승 대에 이르러 이석영·이시영·이회영 등 6형제를 뒀다. 한편 이세필-이정좌-이종주-이경관-이석규-이계조-이유원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가계가 있었다. 이유원은 정승에 있으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유원에게는 아들이 일찍 죽어 후손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유원은 이유승의 둘째 아들 이석영을 양자로 입적시키고 진위 일대의 땅을 물려줬다. 훗날 이석영은 동생 이회영의 뜻을 따라 진위 일대의 땅을 팔아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지원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종교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지도층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고 현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병역에 의무가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로서 의병활동한 분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병역기피가 매우 오래된 병폐로 잔존하고 있다. 정훈이라고 하여, 군인 정신교육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강상구가 지은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에 따르면, 진골계급인 김유신 장군 등의 신라시

대 지배계급들은 삼국통일을 위한 백제, 당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그래서 피지배계급들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럼 질박한 서민의 땅 평택은 어떠한가? 평택은 조선시대 학식을 널리 알린 문과보다는 무관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전쟁에 나가 큰 공훈을 세워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의 신위인 불천지위(不遷之位)에 이른 인물도 있다. 지금은 평택시 면적의 10%가량이 군사기지로 활용돼 평택시 전체가 국가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도시, 국가 기여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이다.

2.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위치

평택시는 국가적 군사요충지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특히 경기만과 접한 포승읍과 현덕면·청북면 지역은 조선시대 전쟁을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연변봉수인 평택시향토유적 제1호 포승읍 ‘원정리봉수’와 내륙 봉수인 팽성읍 ‘망해산봉수’, 경기도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된 ‘평택무성산성지’를 비롯해 5개의 경기도지정 문화재인 성곽과 비지정 성곽 등 고대~중세에 이르는 10여개 이상의 관방산성이 확인되고 있다.

또 왕실에서 관리해온 국영 말목장인 홍원곶목장과 괴태곶목장 등 3곳의 목마장과 조선초·중기 방어시설로 추정되는 토루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역 중 삼성전자 산업단지 부지에서 발굴돼 평택이 예나 지금이나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평택 앞바다는 왜구와 명·청이 해상으로 들어와 내륙을 거쳐 한양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길목이 되었고, 내륙지역은 삼남으로 가는 대로의 분기점으로 평택을 통해야만 서울로 또 지방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에 의해 팽성읍 안정리에 군사비행장이 들어섰으며 1945년 광복 이후 방치됐다가 6.25한국전쟁 발발 후 미 공군이 이 비행장을 사용하면서 K-6 캠프햄프리스수비대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

6.25한국전쟁에서도 평택지구는 빼앗길 수 없는 저지선으로 우리 국군과 UN군이 꼭 사수하기 위한 혈전을 벌여온 지역이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새롭게 조성한 K-55 오산미공군기지도 6.25한국전쟁이 끝났지만 냉전 체제에서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해 오고 있다.

이처럼 평택지역은 6.25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주둔했던 서탄면·고덕면·신장동과 팽성읍 지역 주한미군 기지 2곳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군의 필요와 요청,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수차례 기지를 확장해왔다. 특히 2007년 3월 20일 발표한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에 의해 국내에 위치한 대다수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 통합 배치하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K-6 캠프햄프리스수비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지 확장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와 동두천 미 2사단

을 비롯한 국내 주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2곳 외에도 우리 국군의 핵심 부대들이 주둔해 한반도 안보의 가장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군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서탄면 장등리에 위치한 공군작전사령부는 1961년 창설돼 우리나라 공군의 공중전투 전력을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방공포병사령부·30방공관제단·7항공통신전대가 함께 주둔하고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해를 방위를 책임지는 해군 2함대사령부는 1946년 4월 15일 해방병단 인천기지로 창설한 후 1986년 2월 1일 해군 2함대사령부로 승격 창설되기까지 위치했던 인천항의 기지 추가 확장이 어려워지자 정부 주도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평택항 동부두 북측 끝단 봉화산 기슭에 기지를 건설, 1999년 11월 13일 이전식을 갖고 기지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육군 제51보병사단 제169연대가 5개 직할중대와 4개의 대대를 관할하며 향토방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은 시 전체 명적의 10% 가까이를 군부대 운영에 내어주고, 우리 국군의 육·해·공군 주력부대와 주한미군 2개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의 요충지로 ‘국가 안보 기여도 1위 도시’라는 별칭과 함께 안보적 차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도시로 정의해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3. 평택의 역사인물 이대원 장군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평택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대표적으로 실천한 인물은 이대원 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원 장군은 1566년(명종 21년) 3월 7일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정문동 함평이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조선 중기 함평이씨 집안은 대대로 무예보다는 학문으로 출세하였다. 입향조 이중길 이후 청풍부사를 지낸 이여장과 향시(鄕試)에서 진사시에 합격한 이성근도 문신이었으며, 벽동군수를 지낸 증조부 이석필과 생원이었던 조부 이인도 학문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무관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문무(文武)를 고루 겸비해야 하였다. 이대원도 무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문수련과 무예수련을 함께 하였을 것이다. 이대원 장군이 무예를 수련한 곳은 포승읍의 주산인 대덕산 일대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대원 장군이 무과에 응시한 것은 1583년(선조 16) 그의 나이 18세 되던 해이다. 18세(방목에는 31세) 등과(登科)는 대단히 빠른 시기다. 조선 전기의 상황으로 볼 때 25세에 합격한 원균 장군이나 28세에 치른 무과시험에서 낙방하여 31세가 되어서야 등과하였던 이순신 장군보다는 등과가(登科) 매우 빨랐다.

이대원 장군은 1583년 계미년 별시(別試)에서 병과(丙科) 6등으로 합격해 관직에 나갔다. 이대원 장군은 21세 되던 1586년(선조 19) 12월 녹도만호로 부임하였다. 부임 이듬해인 1587(丁亥, 선조21)년 2월 10일 경 왜구들이 배를 타고 흥양(興陽)으로 침입하였다. 흥양

은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으로 전라좌수영의 관할구역이었다.

녹도만호로 부임한 뒤 이대원 장군이 고을을 어떻게 다스린 방식은 손죽도전투를 통해 알 수 있다. 손죽도 전투에 임한 그의 태도(態度)와 성정(性情), 전사한 뒤 그를 잊지 못하여 추앙하는 병사들과 백성들의 태도로 볼 때, 군비(軍備)를 정돈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백성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였을 것이다.

선조수정실록 권21(1587년) 3월 2일의 기록에 따르면 흥양에 침입한 왜인들은 단순한 어선이나 상선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침입한 왜구(倭寇)들이었다. 이들은 흥양(興陽)으로 침입한 뒤 민가를 약탈하고 방화하며 난동을 부렸다. 본래 흥양에는 축두포(築頭浦)가 있어 수군만호가 주둔하였다. 그러나 1457년(세조3) 축두포는 전라좌수영과 거리가 가까우며 동쪽에는 발포(鉢浦)가 있고 서쪽에는 녹도진이 건너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혁파하고 선군(船軍)들은 녹도와 발포에 붙여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흥양에 침입한 왜구는 전라좌수영이나 발포만호, 또는 녹도만호가 격퇴하는 것이 옳았다.

왜선(倭船)의 침입 소식을 접한 이대원은 사태가 급박함을 깨닫고 상부에 전령을 보내는 것도 미룬 채 즉시 출병하였다. 조선 전기 만호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는 대략 600~700명 정도였고 크고 작은 함선 10척 내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왜선 두 세척에 100~200명이 침입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대원은 출병하여 왜선을 격퇴하고 여러 명의 왜구들의 목을 벤 뒤 수급을 들고 개선하였다. 비록 작은 전투였지만 당시 남해를 지키는 장수들이 왜선만 나타나면 별별 떨며 숨거나 도망가기 급급한 마당에서 왜구의 격퇴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이대원이 당당히 개선하여 전라좌수사에게 수급을 바치자, 좌수사 심암은 이대원의 전공(戰功)이 탐이 났다. 심암은 이대원을 가까이 불러 귀속 말로 소곤거리며 공(公)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투에서의 전공(戰功)은 군인으로서도 출세의 기반이 되었지만 가문(家門)에도 영광스런 일이었기 때문이다. 강직한 성품의 이대원은 상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부정한 요구가 부하장수에게 거듭 거절당하자 심암은 심하게 부끄러워하며 노하였다.

남구만이 찬술한 이대원의 신도비명에는 “공이 돌아와서 수사(水使)인 심암(沈巖)에게 수급(首級)을 올렸다. 심암은 겁을 내어 당초 왜적을 물리친 일이 없었으나 공(公)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하여 공(公)을 앞으로 오라고 불러서 귓속말로 이리이리 말하였다. 공(公)이 따르지 않자, 심암은 부끄러워하고 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래 심암은 왜적이 쳐들어오자 겁을 내어 숨어버렸다가 이대원이 공을 세우자 부하의 공(功)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이대원이 심암의 거듭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심히 부끄러워하면서 분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분노한 심암은 스스로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이대원에게 앙심을 품었다.

1주일이 지난 1587년(丁亥) 2월 17일에 왜선 18척이 손죽도 근해에 침범하였다. 손죽도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45리이며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섬이다. 면적은 2.92km²이며 해안선

은 11.6km²이다. 거문도에서는 북동쪽으로 40km 거리에 있다. 손죽열도의 중심점으로 정해년(丁亥, 1587) 왜변 당시 이대원 장군이 전사하면서 큰 인물을 잃었다는 의미로 ‘손대도(損大島)’로 바꿔 부르기도 하였던 섬이다.

손죽도는 조선시대에 지금의 고흥인 홍양현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후 1896년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돌산군 산삼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여수군에, 1949년에는 여천군에 편입되었다. 1998년 여수시로 통합되었다.

왜구들이 재침하자 양심을 품었던 심암은 이대원 장군에게 피로한 병사 100여 명을 주어 출전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이대원 장군은 ‘해가 이미 저물었고 병력이 또 적으니, 병력을 규합하고 예기(銳氣)를 모아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싸우겠습니다’라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심암은 허락하지 않았다.

신도비에서 약천 남구만은 “심암이 허락하지 않고 위엄을 내세워 협박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출전시켰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장에서 군인에게 상관(上官)의 명령은 곧 법(法)이다.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대원 장군은 적은 수의 피로한 병사들로 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곧바로 지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것마저 거절당하였다. 지원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출전은 사지(死地)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손죽도 해상으로 출전한 이대원 장군은 박면(朴勉) 등 휘하 장수들과 함께 3일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힘껏 싸웠다. 사력을 다한 전투로 많은 수의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지만 적은 병사로 많은 수의 왜적을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하지만 심암은 관망만 하고 끝내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이대원 장군을 구원하지 않은 것은 전라우수사 원호, 순천부사 변협 등도 마찬가지였다. 난중잡록(亂中雜錄)에는 “심암은 이대원을 척후로 내세워 앞장서서 교전하게 하고 자기는 수군을 거느리고 관망하다가 구원해 주지 않고 퇴각해 버리니”라고 하여, 관망만 하였을 뿐 아니라 아예 군대를 철수시켜버렸음을 말해주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움은 3일 간이나 지속되었다. 3일을 싸우는 동안 전선은 부서지고 병사들은 죽어갔다. 구원군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대원 장군을 알게 되었다. 신도비에는 “공(公)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줄을 알고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고 옷을 벗어서 절구(絶句) 한 수를 쓴 다음 가동(家僮)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장례하라고 유언하였다’고 말한다.

중과부적으로 고군분투하던 이대원 장군은 손죽도 해전에서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왜구들은 항복하라고 위협을 가했지만 이대원은 거부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항복을 얻어내지 못하자 왜구들은 이대원을 돛대에 묶어놓고 사정없이 때렸다. 왜구들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장군은 의연함과 기개를 잃지 않고 적을 호령하고 꾸짖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왜적들은 이대원 장군을 죽이고는 즉시 물러갔다고 전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이대원 장군의 용맹함에 기(氣)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약탈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대원 장군은 죽음에 임박하여 절명시(絶命詩)를 남겼다. 신도비의 기록대로라면 절명시는 장군이 입고 있던 옷에 쓴 혈시(血詩)였다.

日暮敵船渡海來 / 해 저무는데 적선 왜구들이 바다를 건너오니
兵孤勢乏此生哀 / 병사는 외롭고 힘은 다하여 이 내 삶이 서글프다
君親恩義俱無報 / 임금님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 모두 갚지 못하니
恨入愁雲結不開 / 한 맺힌 저 구름도 흩어질 줄 모르네

이대원이 손죽도 해전에서 전사한 뒤 전라좌수사 심암은 두려워하며 떨었다. 심암(沈巖) 1574년(선조7) 영암군수로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잘 다스린다고 호소하여 포상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한 번 탐욕과 질투에 마음을 빼앗기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에만 급급하였다. 연려실기술 선조 조 고사본말에는 “심암(沈巖)은 스스로 군율을 어긴 것을 알고 적세가 대단하다고 거짓으로 아뢰고 내지의 군사를 징발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난중잡록에도 “심암은 군법을 어겼음을 스스로 알고, 왜적의 세력이 치열하게 뻗어나므로 내지(內地)의 군사를 징발해야 한다고 거짓 장계를 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대로라면 심암은 부하를 사지(死地)로 몰아 넣고 관망만하다가 죽게 만든 파렴치한 지휘관이었을 뿐 아니라, 진실을 호도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부정직한 행동을 하였던 대역죄인(大逆罪人)이었다.

수백 년 동안 왜구와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린 남해안의 민중들은 멀리 있는 성군(聖君)보다 가까이에서 자신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목민관(牧民官)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이 전에도 여러 차례 왜구들이 침입했지만 대부분의 목민관들은 백성들 지켜주기는 커녕 자기 살 궁리만 하느라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다.

전라도의 행정과 군사를 책임졌던 전라감사 한준이 그런 사람이었다. 한준은 왜구들이 침입했다는 첩보를 보고받고는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순천까지 달려갔지만, 왜구들의 위세에 겁을 먹고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길을 막고 호소하는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숨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대원 장군의 활약은 민중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인 전라좌수사 심암의 간계(奸計)에 의해 이대원 장군이 전사하자 민중들은 절망하였다. 간악한 심암에게는 끝없는 분노를 표출하였다. 위급한 상황을 알면서도 구원하지 않고 북병선 5척만 빼앗긴 원호에게도, 싸우지 않고 도망만 치려하였던 순천부사 변기(邊璣), 배가 더디고 둔하다는 핑계를 대며 구원하지 않았던 신영에게도 분노하였다.

민중들의 슬픔과 분노는 노래로, 집단 향의로, 봉기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대원 장군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죽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는 이런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였

다.

어허!

슬픈지고

녹도만호 이대원은

나라를 위해 충신이 되었도다.

배가 바다로 들어갈 때

왜적들은 달려들고

수사(水使)는 물러가니

백만 명 진중(陣中)에서

빈주먹만 휘둘렀도다.

- 이은상 저, 《고흥 쌍충사 사적》 발췌 -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노래는 삼시간에 남해안 일대에 퍼지더니 여자와 어린아이, 기생들까지 딸라 불렀다고 한다.

전라도의 선비들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 글로서 충신(忠臣)을 위로하고 슬픔을 표현하였다.

화곡(華谷) 정기명(1558~1589)의 ‘녹도가(鹿島歌)’, 한천 정협(1561~1611)의 《손죽도 조 이대원 조사》, 안방준(1573~1654)의 《이대원 전(傳)》, 민이승의 《전라좌수사 증(贈) 병조참판 이공(李公) 전(傳)》 등 여러 문헌에 이대원 장군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글들이 남겨진 것으로 보아도 이대원 장군의 애민정신(愛民情神)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죽은 뒤에야 정당한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권력에 있었던 사람일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없다. 권력 앞에서 낮은 사람이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이대원은 살아서보다 죽어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살아 있을 때에는 주목받지 못했고 당하관(堂下官)에 불과했던 일개 무장(武將)이었지만 국난(國難)을 당하여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결과 후대에 크게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대원에 대한 존숭(尊崇)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죽기 직전에 제수(除授)되었던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서 시작하여 가족들에 대한 예우, 충신정문 하사, 병조참판 추증, 신도비 건립, 사당건립,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존숭, 백성들의 애가(哀歌) 등으로 정리된다.

손죽도의 명칭은 손대도라고도 불리는데 당시 이순신 장군이 “손죽도 해전에서 이대원 장군을 잃은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라 하여 이 섬을 잃을 손(損)자 큰 대(大)자를 붙여서 손대도(損大島)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대원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군이 전사한 뒤 전라도 남해안 일대에는 여러 개의 사우

(祠宇)가 건립되었다. 가장 이른 기록으로는 1599년(선조 32) 홍문관이 이대원의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아뢰는 중에, “녹도만호(鹿島萬戶) 이대원(李大源)은 손죽도(損竹島)에서 전사하였는데 조정에서 포상(褒賞)과 벼슬을 더해 주었으며, 감사 윤두수가 본진(本鎭) 수군(水軍)들의 소원에 따라 사당을 세워 그가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시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수 손죽도 주민들은 장군의 충절(忠節)된 죽음과 업적을 흠모하여 장군의 사당을 세우고 매 년 2회 제사를 지내왔다. 1923년 계해(癸亥) 손죽도 사람인 이상익의 특찬금(特贊金)으로 사당을 중수했음을 중수기(重修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다시 퇴락되어 1964년 손죽도 박성욱 등 주민들이 지붕을 번와(藩瓦)했고, 1982년 7월에 이종옥 군수가 손죽도 초도순시 때 이를 보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복원할 것을 지시하여 이곳 새마을부녀지도자 강귀례 등 부녀회원이 부녀회기금으로 해체 복원하던 중 군비(郡費) 일부를 지원받아 재설계 복원하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장중한 사우를 중수(重修) 준공하였다.

이대원 장군의 문묘를 모신 사우와 유적은 ‘평택 확충사(이대원 장군 문묘)’와 신도비, 묘를 비롯해 ‘여수 손죽도 충렬사(이대원 장군 문묘)’와 묘, ‘여수 영당(이대원, 이순신, 정운, 최영 장군 문묘)’, ‘고흥 쌍충사(이대원, 정운 장군 문묘)’ 등이 있다.

4. 나가는 글

평택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로 대비되는 인물은 ‘이대원 장군’ 외에도 사재를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경주이씨 가문’, 민본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한 ‘삼봉 정도전’, 백성의 글을 만든 한글창제의 주역 ‘보한재 신숙주’, 잘못된 세금제도를 혁파한 대동법시행 시행자 ‘잠곡 김육’ 등 각 분야에 다양한 인물들이 많다.

인물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요충지로 많은 것을 국민들을 위해 내어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인물로나 지리적으로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조명이 필요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평택은 급변하는 지역개발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평택 정체성을 새로운 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언해 본다.

여 백

〈제3주제〉

구휼,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 생산
기반의 구축

장연환 / 효명고등학교 교사

여 백

구휼,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생산 기반의 구축

장 연 환 / 효명고등학교 교사

목 차

1. 서민 생활 안정의 의미와 재해
2. 신문 기사로 보는 평택 지역의 재해
3.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
4. 진척되어야 할 과제

1. 서민 생활 안정의 의미와 재해

어느 시대든지 상류층은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주로 생산에 종사하여 한 사회가 유지하는 기초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상류층은 건전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생활하면서 주요 생산 담당층을 안정시킬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서민 생활 그 자체만을 위하는 것을 넘어 전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 농민은 사회의 기반을 이루었다. 농민은 생산을 담당했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이었다. 농민의 생계가 어려우면 지배층의 지위 또한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찍이 국가에서는 농민들의 몰락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첫 사례를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각각 의창 제도, 조선의 환곡 제도 등을 실시하여 농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농민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재정 기반도 취약해져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인적이든 구조적이든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한 집안의 경제적 여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준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경제적 상황, 개인적 성실도, 시대적인 여건 등이 그것들이다. 개인이나 특정 집안만의 사정에 의해 나타날 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굶주림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상황이 다르다. 어떤 요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빠진다면, 이것은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가난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데는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 외적의 침입,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중 많은 사람들, 특히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재해일 것이다. 재해란 가뭄, 대화재, 전염병,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따위로 인하여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재난을 말한다.

평택은 저지대가 발달하였다. 농지는 산간(山間) 계곡보다 주로 하천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다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농지는 수해나 염해의 피해를 당하기 쉬웠다. 특히 평택에서의 수해는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 쌓은 둑의 유실로 염해를 입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야트막한 구릉에 있는 땅들은 적절한 강우량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많았고, 가뭄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다. 경부선이 개설되고 일제 강점기에 이르면 평택역은 ‘중부 조선의 유일한 미곡집산지’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동아일보 1936년 3월 26일] 농민들의 생활은 곤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평택 지역의 유지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농민 생활을 안정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평택지역에서 이루어진 구휼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구휼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구휼활동이 갖는 모습과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문 기사로 보는 평택 지역의 재해

평택지역의 농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재해가 누대에 걸쳐 어떤 양상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조선시대까지의 기록은 주로 중앙에서 생산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평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농민들의 생활은 중앙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민간에서 신문이 발행되면서 지역의 소식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평택의 수해에 대한 신문기사는 1906년 9월 15일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등장하였고, 그 내용은 “성환-평택 사이 선로가 물에 잠겨 9월 12일 남대문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택에서 회환(回還)하였고, …… 철도가 오늘(15일) 개통되었다고 한다.” 는 내용이다. 그나마 농사보다는 철도 운송 지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당해인 1906년 12월 고종은 “다른 지역보다 수재를 많이 당한 경기의 진위 등에 조세와 호포(戶布)를 탕감해 주고 재민을 돌볼 방도를 강구”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수해 및 한해에 대한 기사는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이어졌다.

보도 날짜	신 문	주요 내용
1906. 9. 15	대한매일신보	성환-평택 사이 선로가 물에 잠김
1918. 7. 4	매일신보	시가지 일대 침수
1918. 7. 16	매일신보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
1919. 9. 27	매일신보	진위군 지역의 가뭄이 매우 심했고, 특히 평택평야가 가장 심함
1920. 7. 9	동아일보	안성천 범람으로 평택시가지 침수, 평택평야 전부가 바다를 이룸
1922. 8. 1	매일신보	진위군 병남면 전부 침수, 수해 인원 6백여 명
1922. 8. 2	매일신보	수해로 사상 5명, 가옥유실 30호, 교량유실 2곳
1922. 8. 3	동아일보	수해로 행방불명 6명, 집 2채 유실, 58채 붕괴 등
1924. 10. 31	동아일보	진위 지역 한해
1925. 7. 23	동아일보	대홍수로 침수가옥 400호, 평야 전부 침수
1927. 5. 24	동아일보	폭우와 우박으로 농작물에 손해 우려
1928. 7. 13	동아일보	극심한 한발로 33% 정도 이앙, 7월 9일 기우제 거행
1928. 8. 28	동아일보	7월 말까지 근근히 이앙을 하였으나, 극심한 한발로 8월 24일 기우제 거행
1932. 3. 27	조선일보	연년히 심한 수재로 농사가 어려워 소작료 납부가 어렵자, 소작료 미납을 빌미로 지주가 소작권을 이동
1932. 9. 8	매일신보	이앙 시기의 한해로 모내기를 못하여 농민 생활이 어려워 질 것임
1936. 7. 23	동아일보	9할 정도 모내기를 하였으나, 도열병이 심하여 농가의 수심이 깊어졌음.

1920년대 후반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는 재해에 대한 기록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1932년 3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연년히 심한 수재로 농사가 어려워’라는 문구가 주목된다. 이 무렵 기사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수해가 계속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1918~1928년 사이 10여 년 동안 수해가 일어났다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1920년대 말부터는 주로 사회운동 관련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전에 비해 기사거리가 많아짐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보도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평택지역은 바다를 접하고 지대가 낮아 수해가 나면 논이 침수될 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역류로 염해까지 입었다. 게다가 천수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므로 가물의 영향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평택지역의 농민들은 수해와 가물 피해를 당하지 않은 해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정도였다. 이 지역 농민들이 겪는 고단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

다음 표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과 주요 내용이다.

인물	지역	주요 내용	비고
고종만	청북면 백봉리	- 정조 20석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줌.	동아일보 (1933. 1. 29)
김사억	오성면 대반리 창말	- 아산만의 조수로 농경지가 유실되자, 자비를 들여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독을 쌓고 해변에 제방을 쌓아 농경지 유실을 방지함.	송덕비를 세웠으나 없어짐.
김명기	오성면 대반리 창말	-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농경지 유실 방지를 위한 제방을 쌓았음. - 연말이면 미곡 수십 석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줌.	-1918년 시혜비를 세웠으나 없어짐. -매일신보 (1911. 6. 2)
안종철	비전동 어인남리	- 1939년 전국적으로 가물이 심할 때 자신이 경비를 부담하여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임	1941년 시혜비 건립했으나 없어짐
양재근	청북면 울북리	- 5년간 흉년이 계속되자 인근 사람들에게 빌려준 장리쌀의 원금과 이자를 면해주었음.	송덕비를 세웠으나 없어짐.
우종철 이치준 우삼현 권정규	마산리	- 각기 백미 2석씩 출연하여 주변 마을 빈민 22명을 구휼하였음.	매일신보 (1911. 6. 2)
윤치소	팽성읍	- 도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시가지 주위 제방공사에 5백원을 출연 - 일본인 화용상시(和用常市)가 부지 450평 기부	동아일보 (1920. 9. 12)

이강헌 이민호	현덕면 윤정리	- 3년간 계속된 한해와 흉작이 계속되자 이강헌이 백미 10가마, 이민호가 20가마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함	동아일보 (1936. 3. 26)
이범철	고덕면 울포리	- 흉년이면 빈민을 구휼하며 해민회사(惠民會社)를 만들어 사창(社倉)을 실시함.	대한매일신보 (1907. 2. 23)
이성렬	비전동 어인남리	- 1919년 소작료 300여 석을 전량을 빈민 구휼에 썼음. - 설이나 추석에 빈민들에게 쌀, 북어, 미역 등 제물을 나누어 줌.	-1920년 덕동산에 시혜비 건립. -동아일보 (1921. 3. 27)
이용손	장안동	- 1939년 가뭄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자비를 출연하여 장안리에서 현재 송탄고가 있는 곳까지 약 1km 정도 진입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벌임.	1940년 시혜비 건립, 1986년 새로 건립함.
이재의	안중읍 용성리 강길마을	- 1919년 흉작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속출하자 곡물을 회사하여 구제 활동을 벌임.	강길마을에 송덕비 건립함.

1) 사업 주도자들의 신분

평택에서는 재해 복구나 빈민 구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직 관리 출신으로 북청현감과 승지 등의 벼슬을 하다 낙향한 김명기이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고덕면 울포리의 이범철은 참봉 벼슬을 지냈으나, 그의 형 이범창은 승지 벼슬을 지냈다. 이범창은 진흥의숙을 세워 신학문 교육에 힘썼으며, 이범철 역시 한글학교[國文學校]를 세워 농민 자제들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둘째는 지주층이다. 안중철, 양재근, 윤치소, 이강헌, 이민호, 이성렬, 이용손, 이재의 등 8명이 여기에 속한다.

안중철은 비전동 어인남리 출신으로 천석꾼이었다. 양재근은 천석꾼의 지주로 1935년 울북리 강습소를 설립하는 등 지역 교육에 힘쓰기도 하였다. 윤치소는 안성군수를 지낸 운영렬을 아들로 팽성읍에서 서정리에 이르기까지 2만섬지기 정도를 소유하였다. 이용소는 장안동 마을에서 평택의 3대 부자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장안동과 서정리 일대에 그의 농지가 분포했고, 면협의원을 지냈다. 이강헌과 이민호 역시 현덕면의 대표적인 지주였고, 특히 이강헌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인물이었다. 이재의 역시 안중읍 용성리의 지주였다.

셋째는 성공한 사업가이다. 이성렬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으나 자수성가하여 평택시장의 상권을 주무르는 중심인물로 성장하였다. 평택인들이 일본인 상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1918년 평택상업조합을 조직하였고, 1927년 현재 이성렬은 조합장으로 있었다. 장사를 통해 성공한 후 구휼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1928년에는 동아일보 평택지국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넷째는 평범한 서민 출신이다. 마산리이 우종철, 이치준, 우삼현, 권정규가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각기 백미 2석씩을 내어서 주변 마을 빈민 22명을 구휼하였는데, 지주나 사업가처럼 부유한 형편이 아닌데도 구휼활동에 참여하였으니 그 마음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북면 백봉리의 고종만이 다소 주목되는 존재이다. 그는 백봉리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의 마름으로 알려져 있다. 백봉리에서 전해오는 그에 대한 평판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는 소작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소작인들의 반발을 유발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차지하여 해방 후에 마을에서 쫓겨난 인물이었다.

2) 재해 복구 활동의 분류와 그 성격

빈민을 위한 구휼 및 농업 기반 안정을 위한 활동은 1911년부터 194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그 내용상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농지의 안정화 및 수리시설 구축이다. 김사역과 김명기는 농경지 유실을 막는 제방을 쌓았다. 홍수가 나거나 조수의 유입으로 인한 농경지의 유실은 안성천과 아산만을 접한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지역민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안종철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수리시설 조성 역시 결과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의 가치를 높이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역민들이 시혜비를 건립하여 고마움을 표하였다면, 여러 사람에게 두로 혜택을 미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윤치소의 경우처럼 지역 유지들의 발의로 경기도청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내놓는 경우이다. 이때는 일본인 화용상시(和用常市)가 부지 450평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관청과 지역유지가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평가된다.

셋째는 1939년 가뭄이 심하여 기근이 들었을 때 이용손이 마을 진입로 공사를 벌이고, 양재근이 장리쌀 원금과 이자를 면해준 것이다. 이용손은 장안동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였고, 양재근은 울북리 어연리 일대에 천석지기였다. 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상당수는 본인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농지에서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는 인적 기반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생산적 복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같은 시기에 수리시설을 만들었던 안종철의 활동도 첫 번째 성격과 더불어 이런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윤정리의 이강현과 이민호, 용성리의 이재의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넷째는 이범철이나 이성렬처럼 지주 또는 유지로서 정기적으로 빈민을 구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셋째의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섯째로 마산리의 네 인물은 그들이 출연한 쌀의 양이나 구제된 사람들의 수로 봐서 인정에서 비롯된 성격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섯째로 백봉리 고종만의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일종의 악질 마름으로 지

금까지 전해올 정도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20석이라는 적지 않은 양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것은 지역 사회의 중심 내지 주요 인물들에게 지워진 의무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권위 있는 유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겠다.

4. 진척되어야 할 과제

지금까지 평택 지역에서 이루어진 구휼활동의 주체와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구휼활동은 유지들이 농민을 빈곤에서 구하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주면서 농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작업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민과 지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구휼 활동의 주체와 내용 및 그 성격은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평택 지역은 넓은 들판이 발달하였지만 수해와 한해 뿐 아니라 염해까지 일어나서 농민의 경제적 여건이 내륙 지역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자영농과 소작인의 비율에 따라 지주들의 역할도 조금씩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구휼사업의 주체와 내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평택지역의 구휼사업이 갖는 양적, 질적 특징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으로 시혜비의 건립 주체와 건립 과정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시혜를 입은 농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비의 건립에 적지 않을 비용이 드는데, 굶주림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빠르면 바로 다음 해에 비석을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매일신보』
2. 『동아일보』
3. 『조선일보』
4.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5.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
6. 평택시·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7.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01
8.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I·II·III
9. 김해규, 『평택 역사산책』, 평택시민신문, 2013.

여 백

〈제4주제〉

1920년대 평택지방의 항일독립운동

김방 / 국제대학교 교수

여 백

1920년대 평택지방의 항일독립운동

- 농민·노동운동을 중심으로 -

김 방 / 국제대학교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농민운동
3. 노동운동
4. 맺음말

1. 머리말

1919년 3·1운동은 식민지 조선의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었으며 국내 운동을 국외로 확대하여 외연을 확장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운동을 계기로 항일독립운동 방향은 일정 부분 수정되었는데 기존의 민족주의 노선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가미했다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보면 소수의 민족부르주아지들이 주도한 운동 양상이 대중 즉 농민과 노동자들이 전면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일제에 대한 투쟁방략은 평화적 시위 양상을 고수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농민과 노동자들의 폭력적 투쟁을 선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1운동 이후 1920년대 조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항일독립운동이 자생적으로 나타나 발전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항일독립운동은 농민운동, 노동자운동, 청년 및 소년 운동, 형평운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민족 및 계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두 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에서 발생한 농민운동과 노동자운동은 1920년대 항일독립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당시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므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처한 경제적, 민족적 모순은 농민운동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는 않았으나, 조선의 임금노동자는 개항장의 부두노동자를 비롯하여 제조업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¹⁾ 노동자들에게 유입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사상은 강력한 노동자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2. 농민운동

1) 1920년대 농민운동의 특성

일제강점기 식민지 하의 농민의 투쟁은 주로 일제의 식민지 토지수탈에 항거하는 소극적 투쟁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의 농민운동은 일본과 한인 대지주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되었으며 강경한 투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 농민운동은 소작농 중심의 소작료 인하 투쟁이나 노동 강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급격하게 부상하였다. 이후 농민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지주에 대항한 소작쟁의를 비롯하여 수리조합 반대투쟁 및 식민지 농정 반대투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²⁾ 일제 지식인층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농민과 노동자들과 연계하면서 운동 양상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했다.³⁾

1) 주요 산업부문 노동자 수는 1911년 6만 6천명에 불과하던 것이 1915년에는 14만 6천명으로 증가하였다(김윤환, 「3·1운동 이후의 노동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9 (국사편찬위원회, 1991) p.108).

2) 지수걸, 「식민지시대 농민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pp.410 ~ 436 ; 박천우, 「일제하 지주제와 농민운동」 『한국자본주의론』 (한울, 1989) pp.149 ~ 167.

3)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서대숙 저, 현대사연구

초창기 일제하 농민조직은 자연발생적이 속성이 강하여 분산적인 형태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며 내적인 구조에서 보면 상호부조 단체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에서 사회주의가 부상하면서 이에 동조한 식민지 하의 농민과 노동운동은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등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가 출현하면서 양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는 운동 주체가 농민·노동자가 아닌 지식인층이 주도하여 계급성에서 한계성을 노정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1924년 4월 서울에 창립한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⁴⁾은 일정 부분 계급적 한계성을 극복한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1920년 4월 11일 창립한 조선노동공제회와 그해 5월 2일에 창립한 조선노동대회의 운동 노선을 일정 부분 통합한 단체였다.

조선노동총동맹의 의의는 전국적 규모로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이며 일정 부분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조선노동총동맹은 노동자·농민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174개 단체가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당시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가입하였다.⁵⁾ 조선노동총동맹의 결성은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소작인회·소작인조합 등 농민 단체가 전국적인 통일 조직의 형태를 갖는 것이어서 내적으로 조직이 확대·강화될 수 있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1920년 4월 20일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문제와 소작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임금과 시간은 최저 하루 샅전 1원과 8시간제로 할 것. 둘째, 소작인 단체는 각 지방에 면을 본위로 하여 군에 연합회를 두고 소작료는 3할 이내로 정할 것. 셋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이민을 철폐할 것 등 이었다.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의 교양에 관해서는 노동야학 및 강습소와 팸플렛 등으로 농민·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철저히 교양할 것을 결의하였다.⁶⁾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조선노동총동맹의 운동 양상에서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농민과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철저히 교양할 것 등을 주문한 것은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국내에 창당된 후 조선농민운동의 조직에 두 가지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나는 면단위로 구성되었던 소작인회 등을 농민조합으로 개편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노동총동맹이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과 조선농민총동맹(朝

회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화다출판사, 1985) ;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돌베개, 1986) ; 이기하, 『한국공산주의 운동사』1 (국토통일원, 1976) ; 이정식 지음, 김성환 옮김, 『조선노동당약사』(이론과 실천, 1986).

4) 조동걸,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한길사, 1983) p.159.

5) 『동아일보』1924년 4월 20일.

6) 『동아일보』1924년 4월 22일.

鮮農民總同盟)⁷⁾으로 분리하여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1926년 12월 조선농민총동맹은 조선노동운동에 대한 신정책을 발표하여 노동운동의 노선을 강화하였다.⁸⁾ 신정책은 조선농민총동맹이 사상단체임을 부인하고 대중운동·조합운동·정치운동의 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만을 강조하여 실천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다음의 도표는 1920년대 농민조합에 의하여 지도된 소작쟁의 발생건수 및 참가인원 수이다.

〈표1〉1920년대 소작쟁의 발생건수 및 참가인원⁹⁾

년 도	발 생 건 수	참 가 인 원	건 당 평 균 참 가 인 원
1920	15	4,040	269.3
1921	27	2,967	109.9
1922	24	2,539	105.8
1923	176	9,063	51.5
1924	164	6,929	42.3
1925	204	4,002	19.6
1926	198	2,745	13.9
1927	275	3,973	14.4
1928	1,590	4,863	3.1
1929	423	5,419	12.8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조합에 의해 지도된 1926~1929년의 농민운동은 소작쟁의 발생 건수 및 투쟁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태도 첨예화되고 있음 알 수가 있다. 1926년 119개의 농민조합이 1927년에는 160개로 늘어났으며 1928년에는 307개로 증가하였다.

조선농민총동맹은 1928년 말 가맹단체가 200여개에 달하였는데 조선농민총동맹은 조선노동총동맹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투쟁양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¹⁰⁾ 실제로 이런 양상을 드러낸 것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집회는 절대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농민총동맹의 조직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활동은 전면 금지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¹¹⁾

초창기 조선농민총동맹의 활동은 미약한 수준으로 보여지는 것은 반대급부로 투쟁성이 증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탄압의 강도와 감시가 증가했다는 것은 역으로 그 역할이나 활동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는

7) 『동아일보』1927년 10월 23일.
8) 『동아일보』1927년 8월 13일.
9) 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pp.26~28.
10) 『동아일보』1930년 1월 1일.
11) 『동아일보』1927년 10월 23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인해 농민운동은 소극적인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폭력을 동반한 적극적 투쟁 형태로 진전되었다.

1930년대 이후 조선농민총동맹은 국제적 노선의 지도에 따라서 개량주의적 경향을 청산하고 비합법적이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일단의 경향은 혁명적 농민조합 이른바 적색농민조합운동의 출현으로 실천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1930년대의 농민운동은 지주에 대한 폭동형태로 전개된 농민항쟁과 적색농민조합의 지도 아래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에 지하활동으로 대항한 농민항쟁으로 구분된다.¹²⁾ 1930년대 적색농민조합의 운동은 좀더 조직적이며 투쟁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일제의 퇴출로 모아지면서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¹³⁾

2) 평택지방의 농민운동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 평택 지역에서 벌어진 농민운동의 양상을 각종 기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920년대 ‘진위(현 평택)에서 발생한 기아참극’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평택 지역의 농민들은 하루에 한끼 정도밖에 먹지 못해 아사 상태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평택 지역 농민들은 대부분이 소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사 상태에 처하게 되자 생존권 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평택 지방은 농민운동과 소작쟁의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더 성숙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현상화된 것이 진위와 안성을 포함하는 진안수리조합(振安水利組合)이며 1923년 2월 25일 결성되어 실행위원 10명을 선정하고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¹⁵⁾

먼저 1923년 진위군 포승면 석정리에서 지주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작인들이 추수한 미곡을 모두 빼앗고 소작인을 결박까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수원군 신평리에 사는 이모씨는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고리대금을 하였다. 그는 진위군 포승면 석정리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자 그의 토지 40여 필을 경매에 부쳐서 그 토지를 차지하였다. 원래 그 토지는 200석 밖에 생산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모씨는 그 마을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소작을 주어 300석의 도지를 받도록 만들었다. 1923년 12월 9일경 이모씨는 타작관 외 50여 명을 석정리에 보내 그 토지의 마름과 협력하여 그 토지에서 추수한 곡식을 전부 빼앗았다. 그해는 흉년이라 추수한 곡식이 불과 300석 밖에 되지 않아 소작인들은 사정을 봐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정하는 소작인들을 밧줄로 결박하고 곡식을 모두 강탈하여 소작인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다.¹⁶⁾

12) 朝鮮總督府, 『道警察部長會議諮問事項』(1934) p.120.

13)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警察報』제2호 (1933) p.15.

14) 진위군 고덕면 두릉리에 사는 김광운의 처 이씨는 32살된 여자로 심한 기근에 시달리다가 다시 춘궁을 당하자 기근에 못이겨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여 기사로 소개되었다. 두릉리의 40여호는 해마다 극빈자가 많아 하루에 겨우 한 끼씩 먹고 연명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일보』1925년 5월 17일자.

15) 『동아일보』1923년 3월 7일.

이상의 자료가 암시하는 것은 토지를 착복한 지주가 교묘한 방법으로 소작권 이동과 고액의 소작료를 인상하여 소작료를 착취한 것이며 아사상태로 인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다. 일제 강점하 식민지 농민을 착취한 악질 지주의 일반적인 형태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926년 11월 진위군 동면과 송탄면의 소작인 대표인 김진태(金鎭泰)와 동리 황치호(黃致浩) 외 7명은 당시 평택경찰서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농감(農監) 김근수(金根洙)를 고소하였다. 농감 김근수는 농민들에게 고소되었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근수는 진위군 고덕면 어염리에서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 소작권을 임의로 이동시키고 회사에서 도지(賭地)로 정해진 소작답을 병작반수해 갔다. 둘째, 규칙에도 없는 소작인 부역을 강제로 요청하였다. 셋째, 도지의 소작지가 한재나 수재를 당하면 회사로부터 면제나 감면을 받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전부 받아갔다. 넷째,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는 소작료를 가져오는 소작인에게 1석에 대하여 15전씩의 수당을 주었는데 수당을 소작인에게는 주지 않고 전부 횡령하였다. 다섯째, 추수를 김근수 임의대로 지정 수확하라는 것이었다.

진위군의 김근수 고소사건은 농민운동의 일단을 드러낸 것인데 임의적인 소작권 이동을 통해 소작료를 인상하여 가혹하게 착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소작권 보장을 빙자하여 노동 강화를 조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저항은 지주에 대한 가혹한 소작료 착취에 반대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농감 즉 마름의 중간 착취에도 반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¹⁶⁾

지주가 소작농에게 지대를 착취하는 것은 물론 경제외적강제를 통해 인신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당한 운반비를 요구한 사건은 청북과 서면의 사례이다. 1927년 진위군 청북면 덕우리에 거주하는 지주 박모씨는 상당한 재력이 임에도 불구하고 네모난 말을 사용하여 일반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받았다. 이후 지주 박모씨에 대하여 소작인들의 불만이 가중되었고 결국에는 불법 도량형기의 사용으로 평택경찰서에 발각되어 벌금 30원의 처벌을 받았다.¹⁷⁾ 1928년 경기도 진위군 서면 신대리에 거주하는 지주 한홍석(韓弘錫)은 무리한 소작료의 징수로 소작인들의 비난이 자자하였다. 한홍석은 원래 간사한 사람으로 소작인들에게 노역을 너무 심하게 부과하여 소작인들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특히 한홍석은 소작인들로부터 받은 소작료를 자신의 집과 창고에까지 운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다른 지역에서

16) 『동아일보』1923년 12월 27일자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상권) (평택시, 2001) p.510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638.

17) 진위면지 편찬위원회, 『진위면지』(평택시·평택시문화원, 1999) p.85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510 ~ 511.

18) 『동아일보』1927년 4월 10일.

는 볼 수 없는 운반비를 징수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의 항의와 원성이 높아지자 한홍석은 소작권의 이동을 빌미로 하여 압박하였다.¹⁹⁾

1930년대 농민운동의 특징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직적이고 소작농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체로 저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반영하는 사건이 진위농민조합 운동이다. 1930년 3월 10일 진위면 북면 야막리에 거주하는 박규희(朴奎喜)는 진위농민조합(振威農民組合)을 발기하여 창립하였다.²⁰⁾ 3월 10일 12시부터 박규희의 집에서 개최된 진위농민조합 창립총회에는 농민 100여 명이 참여하여 제반 사항을 토의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진위농민조합이 창립 배경은 1930년 근래에 보기 드문 대풍작으로 곡가가 폭락하여 벼 한근에 3전 5리~4전에 머무는 헐값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농민들은 곡가의 폭락으로 비료대금과 농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생활은 파멸 상태에 달한 것이었다.²¹⁾ 이러한 농촌 경제의 한계 상황을 인식한 농민들이 공동으로 파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위농민조합을 창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농민운동은 표면적으로 중간 착취자인 마름에 대한 불만이 저항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만 본질적인 핵심은 지주의 가혹한 소작료 착취가 자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본질보다는 중간 착취의 부당성에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운동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다음은 마름의 부당한 착취에 대해 평택 지역의 농민들이 저항한 사례들이다.

1930년 12월에 발생한 진위군 북면 갈곶리의 소작쟁의는 마름의 착취에 반대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이다. 지주가 거두는 지대 소작료 외에 색조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벼 5승~1두씩을 소작인들에게 부과하였다. 나아가 지주에게 보낸다는 명목으로 마늘을 반접에서 한 접씩으로 올려서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마름 유모는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여 200여 명의 소작인들이 불만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진위군 북면의 소작농들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교묘한 마름의 중간 농간으로 원성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²²⁾ 진위군 포승면 도곡 내기리의 소작농들은 1931년 3월 약 100여 명의 마름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발하였다. 경성에 사는 지주는 1930년 5월에 논 40여 마지기를 포승면 만호리 조길구(趙吉九)로부터 매수하였다. 경성에 거주하는 지주는 포승면 임모에게 논 40여 마지기를 관리하게 하였다. 마름 임모는 추수 후 부당하게 소작인 100여 명을 제방증축 일에 동원하고 일방적으로 고추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자행하였다.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한 소작농에게 소작권을 이동하였다. 소작인들이 극도로 분개하여 군농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²³⁾

한편 진위군 송탄면 지산리에서 발생한 농민운동도 마름에 부당성에 반대하여 일으킨 농

19) 『동아일보』1928년 1월 2일.

20) 『동아일보』1930년 3월 13일.

21) 『동아일보』1930년 10월 12일.

22) 『동아일보』1930년 12월 25일.

23) 『동아일보』1931년 3월 11일.

민운동에 해당한다. 이왕직(李王職) 토지의 마름은 매년 소작인의 소작료 중 한 섬에 50근씩을 착취하였다. 마름은 소작인의 입회도 없이 논두렁까지 토지의 평수로 계산하여 한 섬에 220근씩을 징수하는 편법을 구사한 것이다. 지주 이왕직에게는 170근만 납부하고 나머지 50근은 마름 자신이 착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아가 매년 파종종자(播種粽子)를 소작인에게 분배하여 주고 가을 수확기에 1두씩을 징수하였는데 이것은 고리대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혹한 착취의 전형적인 방법이었다.²⁴⁾ 반대로 지주와 마름이 공모하여 소작인을 핍박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1931년 6월 진위군 청북면 덕우리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는 이러한 사례의 전형이다. 진위군 청북면 덕우리 지주 이강세(李康世)는 자신의 마름인 진위군 오성면 학현리에 사는 박지원(朴趾遠)과 소작인들을 허위 고발기로 공모하였다. 마름 박지원의 보증인인 김형옥(金炯玉)·이장규(李章圭)·이계창(李啓昌) 등 3명을 상대로 328석의 대금 1,830여 원을 박지원이 소비하였으니 보증인들이 대리 변상하라고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형옥 등은 지주 이강세와 마름 박지원을 허위 청구소송을 하였다고 평택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평택경찰서 조사결과 허위 청구소송으로 밝혀져 지주 이강세는 사기죄로 마름 박지원은 사기횡령죄로 6월 27일 검거되었다..²⁵⁾

평택 지역의 소작쟁의 즉 농민운동의 형태로 자리한 위의 사례들은 마름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작농들이 단체로 저항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나는 부당성은 색조나 무급의 노동 강요, 지대 이외의 부당한 금품 요구, 비료대를 빙자한 고리대적 착취 등의 모든 편법이 구사되어 생존에 위협을 느낀 농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반증하는 것들이다.

1930년대 농민운동의 핵심은 소작권 이동에 반대하는 것들이 주요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택 지역의 농민운동에서 소작권 이동에 반대하는 투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다. 1931년 진위군 포승면 내기리에서 발생한 농민운동은 조선농민총동맹에서 진상 조사를 결정하고 진상을 폭로한 사건이다. 농민운동의 핵심적인 요인은 소작권 이동에 따른 소작농들의 반대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소작인 대표 김윤팔(金允八)과 이기범(李箕範) 등과 마름을 주재소로 호출하여 심문한 후 군당국에 진정서 제출자를 색출하고자 하였다. 엄중한 처벌과 경고로 인해 일단의 운동은 잠재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소작농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소작권을 상실한 40여 명의 소작인들은 생계가 막연하여 5할이라는 고율의 장뇌벼를 빌려 생계를 유지하였고 농사를 지어 수확기에 보상하는 것이었다. 이것조차 없는 소작인들은 생계를 연장시키기 위해 아사상태에 빠졌다. 조선농민총동맹에서는 진위군 포승면 내기리의 소작쟁의에 관한 진상을 조사기로 결정하고 중앙집행위원인 남상환(南相煥)을 특파하여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였다.²⁶⁾

한편 1931년 진위군 고덕면 문곡리의 농민운동과 진위군 송탄면 서정리에서 지주의 마름

24) 『조선일보』1931년 3월 21일.

25) 『동아일보』1931년 7월 12일.

26) 『조선일보』1931년 3월 22일.

소작권 이동에 반대한 사례들은 전형적인 소작권 이동에 반대한 농민운동의 형태이다. 문곡리의 작권 이동 반대운동은 경성부 축첩정에 거주하는 지주 고전모(高田謀)가 문곡리 부근에 소재한 300여 석 규모의 토지에 대한 소작권을 이동이 주요인이다. 소작지는 매년 심한 수재로 인하여 수확할 수 없어 거의 황무지화된 경작지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작권을 이동하여 불만이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런 상황으로 인해 수진농민조합(水振農民組合)에서 진상을 조사기로 결정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서정리 농민운동은 마름이 일방적으로 소작권을 이동하여 불만이 누적된 사건이다. 마름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소작권을 주고 파종시기에 종자를 보급하지 않는 횡포를 구사하였다. 이에 소작권을 박탈당한 소작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쟁점이 된 사건이다.²⁸⁾

1931년 진위군 송탄면 가재리의 농민운동은 폭력성을 수반하는 형태로 진전된 것이 특징이다. 1931년 5월 7일에 지주가 소작권 이동을 불응하는 소작인을 폭행한 사건은 쟁의 과정에서 폭력을 구사한 것이다. 송탄면 가재리에 거주하는 지주 이모씨는 5월 7일 오후 4시 경 서정리 시장에서 이충리에 사는 소작인 최모씨를 만나 토지 4두락에 대한 소작권을 반납하라고 강요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소작인 최모씨는 논을 갈아 못자리를 하였고 곧 파종을 하게 되니 소작권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항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주와 소작인은 서정리 공립보통학교 문 앞길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지주가 소작인의 가슴을 폭행하였다. 소작인은 중상을 입고 수원 동화병원에 입원한 사건이다. 피해자 소작인 최모씨는 4월 20일 지주 이모씨를 구타 상해죄로 수원 검사국에 고소하였다. ²⁹⁾ 지주가 소작권 이동을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일제하 지주 횡포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성면 이세규농장의 분쟁 사건은 지주와 소작인이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주는 63명의 소작인은 가뭄과 농작물 병해로 인해 생산량이 떨어져 소작료의 감액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주는 금년도 소작료를 내년엔 납입하기로 타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타협하게 되었다.³⁰⁾

1930년대 평택 지방의 대표적인 농민운동은 혁명적 농민조합에 해당하는 수진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수진농민조합이 전개한 운동 양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민운동이 한 단계 진전된 것이여 활동에서도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펼쳐진 점이라 할 수 있다. 1930년 3월에 수원군과 진위군을 포괄한 수진농민조합을 창립하였는데 박승극(朴勝極)·남상환(南相煥)·장주문(張柱文)·이원섭(李元燮)·김영상(金榮相) 등이 주도하였다.³¹⁾ 4월 17일에 수진농민조합은 오산사회단체 앞 회관에서 제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원 수리의 건, 사임원 수리의 건, 지부 반규약 통과

27) 『동아일보』1931년 3월 27일 ; 『조선일보』1931년 3월 27일.

28) 『조선일보』1931년 3월 27일.

29) 『조선일보』1931년 5월 26일.

30) 朝鮮總督府 警務局, 앞의 책, pp.100~101.

31) 진위면지 편찬위원회, 앞의 책, p.87.

의 건, 조합비 징수의 건, 부서 개정의 건 등 6가지 사항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³²⁾ 수진농민조합 집행부는 1930년 5월 진위군 고덕면에 지부를 설치할 강행하였고 9월 30일에는 수원군 양감면에서 수진농민조합 양감지부의 설치 대회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강제로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철저히 탄압한 결과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1931년 2월 수진농민조합은 진위군 북면 하북리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운동 방향을 설정하였다. 결의한 토의사항은 형식적으로 임원의 탈퇴, 집행위원회 소집권 등을 결의하였다.³³⁾ 이후 수진농민조합의 운동이 적극적으로 소작쟁의에 관여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서 운동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진농민조합은 소극적인 운동에서 벗어나 소작쟁의에 적극 개입하였다. 즉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런 결과 11월에 수진농민조합원 위원의 일부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⁴⁾

수진농민조합은 일제의 공권력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6월 진위군에서 순사를 대동한 농회원이 심은 모를 뽑아 버린 사건과 한산리에서 심은 모심는 것을 저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재소에 근무하는 순사가 농사에 관여하여 일방적으로 모심기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강제력을 구사한 것이었다. 수진농민조합에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자 쟁의부장 남상환(南相煥)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였다.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진농민조합에서는 군농회장(郡農會長)을 방문하고 엄중한 항의하였다.³⁵⁾ 수진농민조합이 모심기 과정에서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이 개별적인 개인의 항거보다 조합의 단체 명의로 제기한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진농민조합의 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소작쟁의에서 조직화된 역량을 강화시켜 지주를 굴복시켰다는 점이다. 즉 소작료 인하 투쟁의 경우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양상에서 한 단계 진전시켜 단체로 불납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불납동맹을 통한 투쟁 방식은 지주나 마름의 개별 격파의 전략을 약화시켜 소작농의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 10월 수원군 양감면 소작쟁의는 과도한 소작료를 거부하고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농민운동이다. 이 농민운동의 경우 수진농민조합은 소작료 불납동맹을 지도하여 지주를 굴복시키고 소작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진위군 문곡리의 농민운동은 소작권 이동으로 분쟁이 야기되었는데 수진농민조합에서 적극 관여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11월 23일에 진위군 서탄면 금각리 수진농민조합원 소작인 50여 명은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에 있는 사음 판본(坂本)의 집에 몰려가 불만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수진

32) 『조선일보』1930년 5월 15일.

33) 『동아일보』1931년 2월 18-25일 ; 『조선일보』1931년 2월 17일.

34) 『동아일보』1931년 11월 5일.

35) 『조선일보』1930년 6월 23일자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513.

농민조합은 1931년 11월 24일에 김영상과 박승극은 “소작인 측의 요구를 전부 관철하려면 소작인이 결속하여 벼를 못 쓰게 할 것, 그리고 불납동맹을 감행하고 즉시 수용하지 않으면 벼를 방화할 것”을 투쟁방안으로 결정했다.

소작인 일동은 이러한 투쟁 방안에 따라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수확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3개의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하였다. 기존의 채무는 본금으로 연부(年賦)로 지불하게 할 것, 사음 판본의 부당 착취를 제거할 것, 벼의 종자를 매 두락에 일두씩 지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³⁶⁾ 결국 사음 판본은 11월 26일 소작인들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일반 소작인들에게 보내왔다.³⁷⁾ 수진농민조합이 주도한 농민운동은 소작쟁의 단순 쟁의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전화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진농민조합의 혁신적인 농민운동이 활성화되자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중요 요인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 12월 13일 일제는 수진농민조합의 핵심인물인 남상환(南相煥, 25세, 모 신문 평택지국장), 김영상(金榮相, 25세: 모 신문 분국장), 장주문(張柱文, 27세: 농업), 이원섭(李元燮, 29세: 서당교원), 박승극(朴勝極, 29세: 모 신문 수원지국장) 등 5명을 검거하여 경기도 경찰부로 호송하였다.³⁸⁾ 이후 남상환 등 5명은 열흘 후인 12월 23일에 예심에 회부되었다.³⁹⁾

수진농민조합에 관여한 박승극은 1930년 3월 수원군과 진위군을 통합하여 수원적색농민조합을 결성하였다. 박승극 등은 수원적색농민조합 통하여 소작농들을 의식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일제 공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10월부터 극비리에 조사를 시작한 일제는 조선일보 수원지국장인 박승극, 이원섭 외 3명 등 도합 5명을 검거하였다. 일제는 박승극 등 5명을 47일간이나 구금하는 한편 가혹한 취조를 하다가 1932년 1월 7일 서대문형무소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⁴⁰⁾

수진농민조합과 수원적색농민조합의 주도적인 핵심 인물들의 검거로 적색농민조합 운동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일부 운동자들은 1932년 9월에 진위군 평택면에 평택노동협의회(平澤勞農協議會)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평택노동협의회는 평택사범학교 적화운동 사건과 관련되어 회원 이종필(李鍾弼)·이희수(李喜秀)·김창기(金昌基) 등 3명이 11월 27일 경찰에 체포되었다.⁴¹⁾

이종필 등의 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서적과 편지 등이 압수되었는데 평양사범학교 생도의 명의로 지하운동을 격려하는 편지가 발견되었다.⁴²⁾ 이 편지는 1932년 11월 2일 이정근을 중심으로 조직한 사상문제연구회에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⁴³⁾ 결국 사상문제연

36) 진위면지 편찬위원회, 앞의 책, p.88.

37) 『동아일보』1931년 12월 2일.

38) 『동아일보』1932년 12월 14일.

39) 『동아일보』1932년 12월 24일.

40) 『동아일보』1932년 1월 9일.

41) 『동아일보』1932년 12월 13일.

42) 『동아일보』1932년 11월 30일.

43) 『동아일보』1932년 12월 4일.

구회 주도자인 이정근을 비롯한 회원들도 체포되어 전방위적인 운동 역량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자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것과 아울러 적색농민조합과 평택노농협의회, 사상단체가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점이다. 평택지역의 적색농민조합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 노선을 받아들여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고유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노동운동

1) 1920년대 노동 통제정책

1920년대 일본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 형태로 전환되자 식민지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1918년 쌀폭동에 대한 충격으로 식민지에서 일차적으로 미곡을 약탈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지만 부차적으로 과잉자본을 투자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는 의도도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식민지에서 실행된 것이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이며 초과자본을 투자하여 상품시장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일제는 투자자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한 기존의 회사령(會社令)을 폐지하여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1921년에는 산업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산업에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강화하였다. 이런 결과로 인해 조선의 경제구조는 일본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 및 상품 판매시장 나아가 자본 투자지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⁴⁾

1920년대 식민지 수탈의 일차적 목표는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곡 착취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에 수반한 부차적인 목표가 공업적 투자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독점자본은 일차적으로 토지에 집중되었고 부차적으로 공업 분야에 선별적으로 투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정책적 의도에 의해 조선의 경공업은 정미업, 제사공업, 제면공업 등에 집중되었고 중공업 분야는 제철이나 제련공업이 미흡하게 육성된 것이었다. 나아가 식민지의 저렴한 노동력과 원료를 이용하여 고율의 식민지 초과이윤을 도모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직물업, 제지업, 도자기업, 주조업 등의 제조업이 미흡한 형태로 육성되었다.

경기도 임금노동자 조직의 효시는 1913년 경기도 장단군의 고랑포에서 부두노동자들이 고랑포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을 3월 1일 경기도 고랑포의 부두노동자들이 이상완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고랑포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⁴⁵⁾ 이후 경기도 노동조합은 일정 부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것에 상응하여 노동조합의 동맹파업도 자주 발생하였다.⁴⁶⁾ 노동자

44)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1935) p.165.

45) 細井肇, 『鮮滿の經營』(1921) p.29.

46) 경기도 최초의 동맹파업은 1901년 2월 경인철도회사 종업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한 것이었다(김윤환, 『한국노동운동사』1 (청사, 1981) p.43).

들이 노동력 부담 착취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평택지방의 경우 1913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동맹파업이 대두되었고 3·1운동을 전후하여 일제의 노동통제 정책에 반대한 파업투쟁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공장노동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919년 기준으로 42,000명에서 1928년에는 약 88,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20년대 일제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공업이 발전되어 노동자가 증가하는 자본주의 속성을 보여 준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노동자 수가 일정 부분 통제되고 농촌의 소작농을 비롯한 농민층이 과잉 상태를 유지한 것은 일제가 조장한 고도의 식민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일제는 식민지 농촌에 산업예비군에 해당하는 소작농층과 빈농층을 확산시켜 저렴한 미곡 생산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가 1920년대 실시한 노동 통제정책에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농촌 경제가 계층적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소작농으로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가 농한기에 도시로 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임노동자층이 존속한 것이었다. 일제하 식민지 산업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파생한 임노동자층은 자본주의 노동자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일제가 시행한 노동력 통제정책의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미흡한 형태로 이식되면서 1920년대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 드러났다. 전국적 노동단체들이 결성되었고 노동력 착취 조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대중적 성격을 띠고 전개된 것이다. 1920년~1924년 간의 식민지 동맹파업은 280여 건에 대략 22,570여 명이 참가하였다.⁴⁷⁾ 이러한 파업투쟁의 증가는 식민지 노동 통제정책이 작동된 것이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을 강요한 노동력 착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관계는 자율성과 대등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유지되는 것이 기본인데 식민지 조선의 노사관계는 불평등한 구조가 구축된 것이었다. 일제는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노동탄압법령을 제정하고 식민파쇼기구인 군대·경찰·행정기관 등의 개입을 통해 노동자의 자율적인 단체행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에 전력하였다.⁴⁸⁾ 일제의 노동통제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두려워하였으며 식민지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민족운동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05년 헌병대가 고시한 집회·결사 취체에 대한 고시, 1907년 공포된 보안법, 1910년의 집회 취체에 관한 건, 1912년의 경찰법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등을 제정하여 전방위적으로 감시와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노동 통제정책을 교묘하게 강화시켜 저임금에 기반한 기업적 이익을 착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은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종의 일본인 노동자

47) 朝鮮總督府 警務局,『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1933) p.143.

48) 노동통제의 모습은 파업투쟁에 대한 주체들의 사전·사후 조치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에 비하여 절반이 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⁴⁹⁾ 여성 노동자의 경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었으며 임금은 남자임금의 약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심한 경우 휴식을 보장되지 못했고 불규칙적인 식사와 식사시간도 30분이 고작이었다.⁵⁰⁾ 열악한 노동조건은 아동에게도 적용되었으며 인천 공장의 경우 유년 직공은 임금 30전에 12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⁵¹⁾

총독부 자금이 식민지 개별자본으로 변질되어 초과이윤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시화되면서 식민지 기업은 무한정한 착취에 매진한 것이다. 노동임금의 극단적 착취는 결과적으로 식민지 노동자의 궁핍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육체적 재생산의 한계를 무시한 장시간의 노동에 노출되었고 기아적인 저임금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⁵²⁾

일제의 노동 통제정책의 직접적인 피해는 식민지 노동자에게 파급되어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 실태는 제방·다리 밑·산림 지역 등에 허술한 오두막이나 토굴에 의지하는 토막민이 급증하였다. 도시빈민층인 노동자들은 영양부족으로 아사상태를 견뎌야만 하는 것이며 대부분은 가족을 떠나 노동자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⁵³⁾ 열악한 노동 조건은 물론 민족 간의 차별 대우로 인하여 식민지 조선인들의 인격은 말살된 상태였다. 결국 조선의 노동자들이 일제의 독점자본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한 것은 조선 노동자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위적인 차원에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0년대 일제의 노동 통제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계급의 단결과 노동단체 간의 연대를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노동자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가시화된 고용 형태가 일용노동제(日傭勞動制)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일용노동’ 형식으로 고용되는데 일용노동제는 노동 시장에서 수급조절기구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주로 개별기업의 결정에 따라 모집인들이 노동자들을 조달하여 노무관리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⁵⁴⁾ 본질적으로 일용노동제의 시행은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구매하여 청부제(請負制)와 덕대제(德大制)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한 후 또다시 값싼 노동력을 생산 과정에 유입시키는 것이었다.

1920년대 일제의 노동 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저

49) “노동자들은 아침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와 온 하루를 먼지와 복데기 속에서 노동을 하여 겨우 하루 품삯 1원을 받는 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여 또 밤이 새이도록 잠을 자지 않고 차디찬 야기(夜氣)와 쾌쾌한 먼지냄새 속에서 일을 하여 겨우 그날그날 생활을 한다.” 『시대일보』 1925년 12월 25일.

50) 『朝鮮之光』1928년 5월호.

51) 『조선일보』 1926년 1월 24일.

52) 1932년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성년 남자는 90전, 여자는 55전이며, 미성년 남자는 38전, 여자는 31전이었다. 하지만 1935년도에는 성년 남자는 83전, 여자는 47전이었고, 미성년 남자는 40전, 여자는 30전로 오히려 감소하였다(『동아일보』1935년 12월 19일).

53) 『조선일보』 1925년 6월 14일 ;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 『土幕民の生活・衛生』(1942) pp.43 ~ 45.

54) 당시 공장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안정된 일용노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노동자 전체의 38%가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보였다(朝鮮總督府, 『朝鮮の群衆』(1927) p.62).

항 의식이 고양되고 생존권 차원에서 정치 투쟁화하면서 동맹파업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동맹파업투쟁은 19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총 891건이 일어났으며 총 인원 73,50명이 참여한 것은 이러한 사실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파업의 증가는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의 증가와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다. 광산노동자는 1924년 18,000명 정도였으나 1929년에는 29,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부두노동자도 1920년 초에는 10,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1929년에는 25,000명으로 2.5배 증가하였다. 1928년에 이르러 산업노동자의 총수가 118만 명에 달한 것이었다.

특히 동맹파업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노동자들의 저항형태나 의식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동맹파업 요구 조건의 핵심은 노동력에 합당한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과 8시간 노동제의 확립, 조합원에 의한 십장(什長)과 감독의 선출로 봉건적인 노무관계의 청산, 민족차별의 철폐, 일제 경찰의 간섭 배제와 단체교섭권의 승인 등이었다.⁵⁶⁾ 이러한 동맹파업의 요구 조건은 1920년대 일제의 노동 통제정책에 정면 반대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일제는 대륙침략을 강행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륙병참화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변화로 인해 일제의 탄압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운동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새로운 중화학공업들을 건설하여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⁵⁷⁾ 조선에는 근대적인 대규모 공장들이 늘어나고 노동자 계급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 이후 동맹파업은 발생 건수나 참가 인원수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1932년부터 1934년까지 동맹파업투쟁은 최고조에 달하였다.⁵⁸⁾

2) 노동조합의 결성과 평택의 노동운동

1920년대 평택의 노동운동은 전국적 노동운동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평택 노동운동은 자체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성격이지만 전국적 노동운동과 연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1920년 2월 박중화(朴重華)는 전국적인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를 결성하여 노동운동을 본격화하였다.⁵⁹⁾ 조선노동공제회는 전국에 20여 개의 지회를 설치하고 1만 5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는 노동자의 의식 고양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공제(共濟)』라는 월간지를 발행하였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자

55)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 앞의 책, p.143. 이 수치는 일제에 의하여 크게 축소·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 내무성 사회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26년 쟁의 발생 건수가 1,260건이었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는 32만 5,888명에 달했기 때문이다(『조선일보』1927년 7월 20일)

56) 『조선일보』1926년 3월 24일.

57) 『朝鮮經濟年報』(1939) pp.208~209.

58) 1930년 한국인 노동자의 파업 건수는 100건, 파업 참여자는 1,7192명이었다. 1931년에는 파업 건수가 20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참여자는 오히려 1,6854명으로 감소하였다(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の治安狀況』1933. pp.143~144).

59) 『동아일보』1920년 4월 6일 ; 坪江汕二,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巖南堂書店, 1966) p.167.

각할 수 있도록 계몽 분야에서도 실천성을 강조하였다⁶⁰⁾ 조선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의 소비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쟁의 진상조사 및 중재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 양상에 따라 조선노동공제회는 해체되고 조선노동연맹회(朝鮮勞動聯盟會)가 결성되었다.⁶¹⁾

1920년대 노동운동은 양적 증가로 노동자 요구 조건이 강화되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동단체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분파 운동으로 인해 분열된 것에 대한 반성과 일제 탄압과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합이 의도적으로 도모되었다. 중앙의 새로운 통합 조직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필요성에서 의해 조선노동총동맹은 발기회를 개최하였다. 1924년 4월 18일에 전국 167개 단체 대표 204명의 대표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하였다. 이후 260여 개의 산하단체와 5만 3천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조선노동총동맹은 노동문제의 해결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선노동총동맹은 첫째 노동자-농민의 해방, 둘째 완전한 신사회의 건설, 셋째 자본가 계급과의 철저한 투쟁, 넷째 노동자-농민계급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향상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⁶²⁾

조선노동총동맹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쟁의에 개입하여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였으며 한편으로 기관지를 발행하여 대중의 의식 고양을 선도하였다. 형평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운동과 제휴하고 동아일보를 규탄하는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운동 노선은 지방노동단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와 노동운동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1927년 9월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과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으로 분리되었다.⁶³⁾ 조선노동총동맹은 1927년 9월 분리 당시 156개의 가맹단체와 2만 6백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노동단체로 부상하였다. 조선의 노동운동은 1930년대에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새로 발달한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⁶⁴⁾ 그러나 일제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과 억압이 강화되자 표면적 노동운동은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 분산적으로 전개된 평택지방의 노동운동은 전국적 노동운동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였다. 1930년 4월 27일 진위상조회(振威相助會) 회원들은 진위청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상무집행위원장 전갑순(全甲順)의 사회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진위상조회의 명의를 진위노동청년회(振威勞動靑年會)로 변경하고 제반사항을 결의하였다. 진위노동청년회는 상호부조적인 이익공동체 성격의 상조회를

60)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共濟』는 1920년 8월에 창간되었다(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p.66).

61) 『동아일보』1922년 10월 22일.

62) 『동아일보』1924년 4월 22일.

63)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제3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pp.10 5~113 ; 『동아일보』 1927년 8월 13일.

64) 『朝鮮經濟年報』1939年版 pp.208~209.

노동운동의 단체로 전환시켜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택지역의 노동운동이 가시화되어 드러난 것은 서정리 노동청년회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노동총동맹 서정리 노동청년회는 1930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식을 강제로 취소시켰다. 5월 13일 서정리 노동청년회 집행위원장 남상환은 월례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고압적인 탄압에 대해 비판하였다. 지속적인 감시를 하던 일제 경찰은 6월 30일 노동청년회에서 상무 홍선유, 김학봉 등을 불구속 압송하고 고덕면 두룡리 김영상과 서정리 엄익홍을 압송하였다.⁶⁵⁾ 일제는 노동청년회의 불온서적에 대한 수사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노동청년회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9월에 서정리 노동청년회에서는 집행위원장 남상환이 월례회를 개최하고 당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안건은 국내외 정세보고, 노동자들의 노임 문제, 회비 징수, 반동회원과 반동단체 박멸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⁶⁶⁾ 이어서 기타사항으로 서정리 노동청년회 정위원(停委員)으로 박병철(朴炳喆)·최오봉(崔五捧)·노이원(盧利遠)·신성철(申星澈)·남상환(南相煥) 등을 선출하고 진위사회단체연합회(振威社會團體聯合會) 회관 건축, 기성회(期成會) 축성에 관한 건을 처리하였다. 월례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반동단체 등을 거론하고 회원을 선출하는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을 드러낸 점이다.

1931년 4월 26일 서정리 노동조합 제1회 임시대회가 서정리의 태화관(泰和館)에서 개최되었다. 집행위원장 남상환(南相煥)의 개회사가 있은 후 서기 김영상(金榮相)이 조합원들을 소개하고 회의록을 낭독하였다.⁶⁷⁾ 집행위원장 남상환이 간략한 경과보고 후 세계정세와 국내정세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자 임석경관이 저지했으나 보고를 관철한 것이다. 임시집행부 선거에 들어가 남상환(南相煥)을 의장으로 김영상(金榮相)은 서기로 선출하였다.

서정리 노동조합은 제1회 임시대회가 끝난 후 다가오는 5월 1일의 메이데이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평택경찰서는 메이데이 기념식 행사를 취소시키고 경찰관을 서정리 노동조합 집행위원장인 남상환의 집에 파견하여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남상환의 행동을 감시하였다.⁶⁸⁾ 6월 2일 서정리 노동조합은 정기월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일제 경찰의 방해로 무산되었다.⁶⁹⁾

남상환은 평택지역의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그의 치열한 항쟁 의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상환은 진위청년동맹에 관여하다가 서정리 역전에 있던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리노동청년회, 수진농민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남상환은 서정노동

65) 『조선일보』1930년 7월 5일 ; 진위면지 편찬위원회, 앞의 책, p.92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681.

66) 『조선일보』1930년 9월 11일.

67) 『조선일보』1931년 5월 2일.

68) 『조선일보』1931년 5월 5일.

69) 『동아일보』1931년 6월 4일.

청년회를 결성하여 노동자들을 계몽하는 한편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진안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빈농들의 자립을 도모하던 중 치안유지법으로 구속되어 480여 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사망하게 되었다. 남상환의 업적은 대중들의 의식을 고양시켜 자발적으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맺음말

3.1운동 이후 항일독립운동은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대중 투쟁이 일상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농민운동의 투쟁 강화는 토지조사사업 후 토지를 상실한 농민층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며 자본주의 속성이 나타나면서 임노동자가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운동도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권이 혹독하게 감시한 일면을 감안하면 농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식인 주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직접 투쟁을 강화하면서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세계사적인 사회주의 운동 경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이나 운동 성향이 성숙한 단계로 진전될 수 있었다.

항일독립운동은 전 사회영역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분야는 경제적 투쟁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선 민중 대부분이 민족적 모순과 함께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기형적 경제구조에서 기인한 심각한 경제적 모순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적극 항거한 것이 평택지방의 농민운동이며 다양한 투쟁 방식으로 대응하며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192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업분야에서의 운동이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평택지역에서 전개된 적색농민조합 운동은 당시의 농민운동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고립성과 분산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의 농민운동의 투쟁 방식이 소작농 개인 중심의 소극적 운동 형태를 불납동맹 등으로 전화시켜 단체 중심의 강경 투쟁으로 이끌었다. 수진농민조합의 농민운동은 체계적인 조직력과 정치 지향적인 형태의 운동으로 다른 사회단체와 연계시켜 투쟁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확보한 것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공업은 열악한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의도가 가시화되었다. 이런 의도로 인해 식민지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에 노출되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폐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식민파쇼기구인 경찰기구가 자본과 임노동 사이의 관계 위에 군림하면서 노동자층을 탄압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즉 노동자 단체 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민족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별 격파가 자행되었다.

1920년대에 평택의 노동운동은 193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어 투쟁 강도를 강화할 수 있었다. 1930년 말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대중적 파업과 함께 태업투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공장들에서도 노동자 태업이 연속적으

로 전개되었다.⁷⁰⁾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일제의 집회금지와 조직 해체 등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지하로 잠복하였다.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일제 관리에 대한 폭행과 국경지방의 무력항쟁 등 폭력적 항거와 적대적 행위로 표출되었다.

■참고문헌

1. 『매일신보』
2. 『동아일보』
3. 『조선일보』
4. 『시대일보』
5. 『조선농민』
6.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7.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
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상권) (평택시, 2001)
9. 진위면지 편찬위원회, 『진위면지』 (평택시·평택시문화원, 1999)
10. 신일철 「한국독립운동의 사상적 성격」, 『아세아연구』 59(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8)
11.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2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2. 서대숙 저,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화다출판사, 1985)
13.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돌베개, 1986)
14. 이기하,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 (국토통일원, 1976)
15. 이정식 지음, 김성환 옮김, 『조선노동당약사』 (이론과 실천, 1986)
16. 조동걸,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83)
17.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18. 김윤환, 『한국노동운동사』 1 (청사, 1982)
19.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20. 김중렬, 『항일노동투쟁사』 (집현전, 1978)
21. 인정식, 『조선농촌문제사전』 (신학사, 1948)

70) 『조선일보』1937년 11월 3일자; 『京城日報』1938년 6월 16일자 및 12월 4일자; 『京城日報』1940년 10월 12일자

여 백

〈제5주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평택 교육의
다면적 전망

서승갑 / 동서울대학교 교수

여 백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평택 교육의 다면적 전망

서 승 갑 / 동서울대학교 교수

목 차

1. 시민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
2. 평택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용
3. 교육의 관점에서 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4. 평택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확보 방안
5. 마무리 제언
6. 평택교육의 관한 자료

1. 시민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

평택은 후기 산업사회인 정보화 사회의 과정에 봉착하여 있고 한편으로는 4차 산업의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격변기를 맞이한 평택은 문화변동에 대한 지체현상이 심화되는 와중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물질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의 편차가 가중되어 일단의 문화지체 현상이 보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모순은 일정 부분 자기 전통에 대한 부정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성과주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평택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평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상위계층의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전근대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상위층의 책무만을 강조하는 한계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정보화 사회에서 수평적 민주주의가 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무가 한정된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시민사회로 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시민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평택 공동체 성원 모두가 교육 분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평택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의 적용

사회 공동체주의 정신이 시현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성숙된 평택인의 의지와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적어도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바다에 도전하여 토지를 간척한 개간과 해양 무역의 정신
- ▷ 일제강점기 평택인의 저항 정신
- ▷ 현대 평택 기업인들의 창조적 파괴 정신

현대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택지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참여 기업들을 선정하고 법인화된 단체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적용하기 위한 범주는 교육 부분의 경우 전통적으로 이어온 순수 교육 부분만을 한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즉 평택 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범주를 확대하여 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직무 교육 부분

으로 확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업 교육은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사회 발전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육 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평택 기업들은 자체적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나 공헌 등을 수렴하여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교육의 관점에서 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교육의 작동 방식의 본질은 공동체 성원들의 모방학습을 통한 공감능력을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택 교육 부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적어도 공감능력에 기초하여 동조화에 기여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평택 교육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평택인들의 개별성적인 자긍심에서 발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자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에 대한 자긍심은 자아의 성취 과정에서 축적되어 동기가 부여되는 경우 배가되는 것이다. 즉 공감능력을 공유하기 위한 장치가 교육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수평적 민주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4.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미래적 교육 가치

직분의 수행

조선시대의 경우 자신의 직에 대한 반대급부의 책임 정신을 강조하여 조선의 500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12대 300년을 이어온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인 육훈(六訓)에 나타나는 검약과 상조의 정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방 행정관의 도리를 서술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도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모범을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베버는 직분론에서 정치적 지도자상은 격렬한 정열과 냉정한 관찰력을 통일하고 그것을 몰주관적(沒主觀的)인 책임감에 의해 지탱하는 인간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참조하여 교육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적용하면 다음 사항에 주목할 수 있겠다.

교육에서 강조되어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책임정신, 검약과 상조의 정신, 솔선수범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교육자의 인간상은 교육에 대한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냉정한 관찰로 몰주관적인 책임감을 시현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창의성에 의한 해결 방안 제시(나눔의 정신 실현)

현재 평택의 모든 현장 교육에서 교육 공구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거나 4차 산업에 대응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창안하여 실천하는 교육자들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의 융합학문에서 교육은 창의성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중요 핵심 가치이다. 즉 평택 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평택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창의성 교육의 사례를 집산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체제를 먼저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창의성 교육에 대해 평가한 후 피드백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전체 구성원이 공감하는 학습 방법을 표준화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콘텐츠 내용 구성이 중요하게 부상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스토리 텔링이나 캐릭터 구상 등을 상상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창의성 교육에 경쟁 관계 도입과 공로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책이 강화되어야만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의 배양(인성의 실현)

공감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공감의 작동은 인간 본성과 개인의 기질, 상황의 논리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타자를 위한 실천이 동반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육에서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공감 능력을 공유하는 인성적 태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인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공감 능력의 공유는 자기 주도학습과 학교의 인성 교육, 현장 학습, 자원 봉사 활동, 방과후 수업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리하게 된다.

교육에서 의사소통 구조를 체계화하고 평택 교육에서 이를 표준화한 후 학교 교육의 장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의 인성 교육에 대한 사례들이 집산되어 검토된 후 이를 표준화하거나 공유하는 체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5. 평택 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확보 방안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작업

평택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작업이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경향은 통시대적이고 인물 전체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술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교육적 활동에 대한 서술은 전체적인 맥락이나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파악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 융합 학문이 시도되는 현 시점에서는 가치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구체적인 부분들이 결합되어야만 융합에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이

런 부분에서 통괄적인 정보나 교육의 가치는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택 교육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상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미시사적으로 접근하여 항목화한 기술이 축적될 수 있도록 교육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항목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군 고덕면 울포리 계루지마을에서 출생한 안재홍은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안재홍의 경우 전체 인생의 삶을 통괄적으로 서술하거나 조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일정 부분 필요한데 안재홍의 공감능력 즉 의사소통의 특이성, 일제강점기 보여준 사회적 책무의 실천,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 등을 항목화하여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래 비전에 대한 안재홍의 시각은 신민족주의 사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학

신민족주의 사학은 역사학의 기본 사항인 문헌고증을 토대로 사회경제사학의 보편적인 발전법칙을 수용하려는 안재홍(安在鴻)과 손진태(孫晋泰) 등에 의해 펼쳐졌다. 안재홍은 그의 역사서에서 신민족주의에 대해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신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신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체계적인 한국사는 손진태에 의해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재홍의 역사인식이 신민족주의 사학에 포함되는 것은 그의 독창적인 민세주의(民世主義)가 신민족주의 사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민족주의 역사학은 1940년대 파쇼적인 제국주의 탄압에 대항한 민족주의 좌파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 노선과 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계급보다는 민족주체의 성장·발전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신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안재홍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특히 1930년대 역사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학운동을 선도했다. 그는 조선학에 대해 조선에 고유한 것, 조선문화의 특색, 조선의 전통을 천명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조선학운동은 일본의 식민주의 동화정책에 대한 대응논리이며 나아가 사회경제사학의 도식적인 공식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한 학적체계였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역사이론은 신채호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 일제의 동화정책에 저항하면서 축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독립투쟁노선이나 역사해석 방법에서 극우와 극좌를 지양하는 중도노선을 택하였는데 이것은 조선학운동에서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인류의 역사는 자연정복투쟁·민족생존투쟁·국내계급투쟁의 역사라 규정하고 국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개체적 특수성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재홍은 세계사의 보편성과 민족사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결합해 민족과 세계의 모순이 없는 발전논리를 모색하는 이른바 민세주의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민세주의가 성숙되는 단계

에서 계급사관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신민족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신민족주의 이론은 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민족을 구성하는 사회 계층간의 대립 반목을 해소하고, 외적으로는 타민족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민족주의 역사학은 이러한 민족 전체의 성장과정이나 발전과정에 관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대중공생에 기초하는 신민족주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이론이 성립된 것이다. 결국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진을 강조하는 인식체계는 만민공생의 철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극우와 극좌의 양측에서 공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6차의 옥고에서 풀려나 고향에서 집필한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은 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고대사회 발전과정의 대계(大系)를 찾는 동시에 사회발전의 단계성도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고대사회는 고조선사회의 발전과정에 조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편 기자조선의 문제도 중국인 기자에 의해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 고조선 사회발전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회발전의 한 단계로 파악하였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신채호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켰고 신민족주의 입장에서 민족 주체적 관점을 확고하게 한 결과 고대사 인식의 폭이 확대되었다.

안재홍은 조선상고사감에서도 연구 방법은 신채호(申采浩)나 정인보(鄭寅普)의 연구영역과 발상에서 출발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한계성을 지적, 극복하려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 또한 언어학적 방법과 근대 사회과학 방법을 연구에 응용하였고, 고대사 연구에 사회발전 단계설에 도입하여 단군조선에서 삼국시대로 발전해 가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측면도 항목화하여 스토리 텔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택문화원의 역할

다음으로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평택문화원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평택 문화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담소와 토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이나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원이 주도하여 평택의 교육전문가들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협의하여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일회성을 탈피하여 연례행사로 계획하고 주기별로 행사 단위를 세분화하여 일정 부분 관심을 고조시키는 전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을 네 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 별로 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다시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자본의 축적을 통한 순환적 구조 개선

평택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체 중심의 도시로 전환되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다.고덕지역의 삼성 등 대기업의 기업 정신은 물론 중소기업체의 기업 정신을 사례별로 선별하여 비교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교육과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평택 교육 현장에 소개하고 학생들의 경진 대회에서 선발된 우수 학생들이 연수를 하거나 기업체 견학 등의 장을 마련하여 진로탐구의 선행학습의 장을 강화한다. 나아가 기업체 등이 솔선수범하여 평택의 장학 제단을 만들고 평택의 학생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가게 한 후 이들이 사회에 참여한 후 반대로 장학금을 쾌척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정 방식

평택의 교육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교육자는 자천과 타천에 의한 천거제를 활용할 수 있다. 평택 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현하는 교육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적어도 민주적인 방식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 총괄적인 평가보다는 세분화된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인물들을 선발하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즉 인성분야, 미래지향적 교육, 봉사 희생의 헌신, 자신의 직분 수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마무리 제언

전통적 유교 교육의 장점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축적하여 평택 교육의 본원을 궁구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교육의 정신은 현재적 상황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 교육에서 이러한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의 분야는 연구의 범주를 확대해서 기업에서 기울이는 창조적 교육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평택 기업의 자체 연구나 교육 분야도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사례를 축적하여 기업 교육의 체계화에 일조하도록 한다. 평택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시현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고 발표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나아가 기업 교육의 장과 학교 교육의 공통 부분을 연결하여 상호 소통하는 연결 고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시민 사회에 광고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기업체를 순회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펼쳐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창의성 교육의 사례를 집산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분석한 후 공유하는 체제가 선행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창의성 교육에 대해 평가한 후 피드백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전체 구성원이 공감하는 학습 방법이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킨 사례를 공유하고 개

선시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후 평택 교육에 적용시키는 경우 평가 부분을 세분화하고 항목화하여 민주적 방식을 통한 선발로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자본 순환적 구조를 고착시켜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택의 장학 제단을 새롭게 창출하고 현존하는 장학 제도를 평택 전체로 통합한 후 평택의 학생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가게 한 후 이들이 사회에 참여한 후 반대로 장학금을 쾌척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7. 평택 교육의 관련 자료

안재홍

안재홍 安在鴻, 1891.12.30 ~ 1965.3.1) 선생은 1891년 12월 30일(음 11월 30일)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군) 고덕면 두릉리에서, 순흥 안씨(順興安氏) 윤섭(允燮)과 남양 홍씨(南陽洪氏) 사이의 8남매 가운데 2남으로 출생하였다. 1897년부터 가숙(家塾)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한학은 선생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1907년부터는 이른바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이 해에 서울의 황성기독교청년회 중학부에 입학하였다. 당시 YMCA는 월남 이상재, 한서 남궁억, 좌옹 윤치호 등이 출입하던 곳이었으므로, 선생은 긍지를 가지고 여기서 3년간 신학문을 배웠다. 이때 역사학자이자 항일지사로서 늘 존경하고 흠모하였던 11세 연상의 단재 신채호를 만났다.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20세의 선생은 구국의 뜻을 품고 9월 일본 유학에 올랐다. 아오야마(青山) 학원에서 어학 준비를 끝낸 뒤 1911년 9월 와세다(早稻田)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였고, 10월에는 도쿄에서 재일 조선인 유학생 전체를 통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조선인유학생학우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21살 되던 이 해에 선생은 장대한 기개와 포부를 드러내 ‘민중의 세상’이라는 뜻의 ‘민세’(民世)라는 아호(雅號)를 지어 평생 삶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1914년 여름 선생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선생은 1915년 3월 자작자급(自作自給)으로 민족자본을 육성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선산직장려계(朝鮮産織獎勵契)에 일반 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17년 3월 이 단체가 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임원과 회원이 구속당할 때 최남선, 유근, 김두봉, 김성수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 해 5월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에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선생은 여기에 참여하여 총무로 활동하였는데, 11월 이 단체가 대구에서 발각되면서 피체되어 1921년 5월 징역 3년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1922년 출옥한 선생은 옥고로 피폐해진 몸을 추스른 뒤 1924년 4월 조선물산장려회 이

사로 참여하였다. 당시 선생은 산업구조상 일본자본에 비하여 조선인 공업생산이 다소 우세한 분야였던 직물업, 제지업, 요업, 화학공업 등 중소기업과 가내공업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토산장려(土産獎勵)를 내세웠다. 동아일보계의 물산장려 논리와는 전혀 달리 선생은 일본 독점자본주의라는 외래 자본이 침투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민족자본·민족경제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조선인 자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그해 5월 선생은 <시대일보>의 논설기자로 입사하여 언론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조선일보> 주필 겸 이사로 전직하여 1932년 퇴사하기까지, “평균 10일에 7편 꼴의 사설과 시평을 집필하는 경이적인 정력으로” 말 그대로 ‘중형무진’ 필봉을 휘둘렀다. 확인된 것만 조간의 사설 약 980편, 석간의 시평 약 470편이다. 특히 1925년 4월 선생은 조선기자대회에서 부의장에 피선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언론계의 중추로 떠올랐다.

1926년 3월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강달영이 주선하여 선생을 비롯한 천도교 구파의 권동진, 이종린 등 민족주의자 7명이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민족협동전선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자치운동을 추진하려는 세력에 대항하는 비타협 민족운동세력의 협동전선이 구체화되었다. 선생은 이전부터 민족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자들과 협동해야 한다는 협동론자였다.

한편 이 해 9월 동아일보계의 송진우, 김성수와 천도교 신파의 최린은 1923년부터 추진하였던 자치운동 단체 연정회(研政會)를 조직하려고 다시 움직였다. 이른바 자치운동의 논리는 현재 조선민족의 능력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므로 독립할 기회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독립에 도달하는 한 단계로서 자치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선생은 자치운동을 일제와 연락, 호응하여 민족운동의 전선을 분열시키는 ‘관제적 타협운동’이라 규정하고 이를 절대 배격하였다.

1926년 10월 선생은 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에 연정회 재조직 계획을 알려 이를 무산시켰다. 이는 ‘민족주의’라고 뭉뚱그려 부르던 정치세력이 비타협 민족주의와 민족개량주의로 뚜렷이 갈리는 분기점이 되었다. 선생은 ‘자치운동 = 타협 = 우경(우익)’, ‘절대독립론 = 비타협 = 좌경(좌익)’이라 규정하고, 스스로 ‘좌익’을 자처하며 1927년 1월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으로서 신간회(新幹會)를 발기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해 2월 15일 신간회를 결성하여 조사연구부의 간사로 선임되었다.

신간회는 자치운동에 대항하여 절대독립을 추구하던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 자치운동을 분쇄하고 민중의 정치·경제의 각성을 촉진하고, 전 민족의 단결을 꾀하고자 조직한 단체였다. 중국국민당 형태의 협동전선을 추구하던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신간회는 민족협동전선체로 발전하였다.

1928년 1월 선생은 <조선일보>에 사설 ‘보석 지연의 희생’을 발간한 책임으로 구속되어 금고 4개월을 당하였다. 그 해 5월에는 <조선일보>에 사설 ‘제남(濟南) 사건의 벽상관(壁上觀)’을 집필하여 <조선일보> 발행인에서 물러나는 한편 금고 8개월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1929년 1월 출옥하였지만, 그 해 12월 광주학생운동의 진상보고를 위하여 신간회가 주

도한 민중대회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1930년 1월 선생은 ‘조선상고사관견’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다. 좁은 소견이란 뜻으로 ‘관견’(管見)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선생의 역사가로서 진면목이 드러나는 고심작들이었다. 이때 쓴 글들은 1937년부터 집필하고 8·15해방 뒤에 간행된 [조선상고사감] 상·하(1947, 1948)와 [조선통사]의 기초가 되었다. 선생이 고대사 연구에 관심을 집중한 까닭은, 고대가 한민족의 형성과 영토의 확장 등 민족의 번영기를 구가하던 때였으므로 일제의 식민주의사학이 가장 심하게 왜곡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단군’이라는 말을 꺼내는 일조차 불온시되었던 시기에, 단군을 말살한 식민주의사학을 비판하며 기자동래설을 부정하는 등 선생의 민족주의사학은 바로 민족해방운동의 한 갈래였다.

역사 저술을 통해 민족 정신을 알리다

1931년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를 해소하려 하자, 선생은 해소론에 맞서 해소반대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끝내 신간회가 해소되자 1932년 1월 민족의 역량을 결집한 표현단체(또는 표면단체, 합법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선생은 민족단체통제협의회를 조직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선생은 조선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만주동포 구호 의연금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옥중에서 사장직을 사임하고 징역 8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남경군관학교 생도사건’ 보도기사, <매일신보> 1936년 6월 4일자. 종로서에서 취조중인 ‘남경군관학교 생도사건’에 선생도 소환되어 취조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932년 11월 출옥하였지만 선생이 활동할 공간이 전혀 없었다. 신간회와 같은 합법운동 단체도 없었고, <조선일보>도 사주와 발행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 간 상태였다. 일제는 만주침략을 도발하였고, 전 세계에 파시즘이 대두하는 분위기에서 일본제국주의 파쇼체제도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일제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민족해방을 위한 ‘차선’의 활동으로 “국사를 연찬하여 민족정기를 불후에 남기는 사명”을 자각하였다.

선생은 1934년 들어 위당 정인보와 함께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를 교열·간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산 정약용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조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학운동을 한국사학사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8·15해방 후 식민주의사학을 극복하는 한 갈래의 작업으로 실학 연구가 본격화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선학’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최남선이었지만, 선생은 ‘조선학’의 의미를 ‘한국학’, ‘국학’ 따위의 학문의 영역으로만 한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선생은 민족운동의 새로운 이념을 ‘조선적’ 영역에서 도출하고, 더 나아가 현 단계 세계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길고 커다란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선생은 조선학운동의 과제로 “민족으로 세계에, 세계로 민족에, 교호되고 조합되는 민족적 국제주의-국제적 민족주의를 형성”하자는 ‘민세주의’(民世主義)를 제

창하였다. 선생은 자신의 호의 의미를 ‘민중의 세계’에서 민족의 독자성과 세계사의 보편성을 함께 지향하는 과제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조선학운동, 나아가 한국사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다. 민세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변증법으로 지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생이 정약용을 ‘국가적 사회민주주의자’로 규정하고, ‘산업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균등’이라는 말로써 설명하는 데에서도 이미 신민족주의 사상의 뼈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1936년 선생은 군관학교 학생사건으로 검거되어 2심 재판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고, 1937년 보석으로 출감해서는 고향 두릉리에서 한국상고사와 관련한 저술을 시작하였다. 1938년 5월 선생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검거되어 3개월만에 석방되었으나, 군관학교 학생사건이 징역 2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해 다시 수감되고 말았다. 1939년 출옥해서는 다시 두릉리에서 한국상고사에 관한 저술에 몰두하였다.

선생은 1941년 [조선통사]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42년 12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경남도 홍원 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1943년 3월에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6명 가운데 이윤재, 한징 두 분이 옥사한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일제는 피검된 사람들을 아주 모질게 고문하였다. 선생 또한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콘크리트 감방에서 100여 일 동안을 서서 지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그로 인해 위장병이 발병하여 옛날의 면모를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모두 9차례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로 이어진 이 마지막 고통은 너무도 감내하기 어려웠다. 선생은 철창 안에서 국가와 연결시켜 한시를 짓고 “이것을 절명시(絶命詩)로 남겨 두고 적당한 때에 한 많은 고국을 떠나리라고 그옥이 별려 보았다.”

새로운 시대의 건국에 앞장서다

1944년 8월에서 12월 무렵, 선생은 여운형에게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여운형의 구상과 달리 선생은 일제가 패망한 뒤의 정치현실에 대비하여 민족주의자가 해방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 진영을 주류 역량(主流力量)으로 삼는 조직을 결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1944년 가을 무렵 선생은 당시 민족주의자의 한 ‘중진’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 ‘중진’은 선생이 제안하는 바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민족주의 계열은 아무런 조직체도 준비하지 못한 채 8·15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여운형이 제의한 바를 거절하였지만, 선생은 여운형과 식민지 시기 끝무렵 시국에 대처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두 사람의 공동 보조는 8·15 해방 당일 여운형을 위원장, 선생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출발시키는 힘이 되었다. 물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명칭도 스스로 지을 만큼 건국준비위원회가 ‘다음 단계의 정부 수립을 기하는 준비기관’으로서 최선의 구실을 다하도록 노력하였다. 8월 16일 선생은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해내·해외의 3천

만 동포에게 고향'을 방송하였는데, 이는 “흡사 신정부 수립의 정책 발표와 같은” 건국 방침이었다.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주된 목적은 중경 임시정부가 환국하기 전, 그리고 독립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과도적 기구’를 구성함으로써 임시정부가 환국하여 정부로 행세할 수 있는 기반을 삼으려는 데 있었다. 선생은 민족주의 세력이 표면에서 건국을 주도하고, 공산주의자는 이를 제2선에서 지지하는 ‘초계급적 협동전선’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 안에서 주력하였던 문제도 공산주의 세력의 득세를 막고 민족주의 세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의도와 달리 건국준비위원회 안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독주하여 좌경화하였다고 판단한 선생은 8월 말경 건국준비위원회를 탈퇴해야겠다 결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좌익 세력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9월 10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여(余)의 처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경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정부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완전히 탈퇴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선생은 정식정부를 수립하는 길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영립보강(迎立補強)함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믿었다. 선생이 주장하는 ‘중경임정 영립보강론’은, 중경 임정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혁명역량을 집결함으로써 중경 임정을 보강하여 신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정식 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었다. 선생은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를 실천에 옮겼다.

1946년 5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렸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파열음을 냄으로써 조선임시정부 수립과 그를 통한 정식정부의 수립이 마냥 지체되는 현실에서 선생은 자신의 정치노선을 크게 수정하였다. 선생은 한국의 독립과 진정한 해방이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정히 깨달았다. 그리하여 미소공위를 결렬시킨 한 원인이 되었던 반탁노선에서 완전히 돌아섰고, 또 ‘중경임정 영립보강론’도 거두어들였다. 1946년 5월 여운형, 김규식 사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라고 촉구하며 구체화되기 시작한 좌우합작운동은 7월에 들어 정식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좌우 측의 공식대표를 선정하였다. 선생은 우측 대표 5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임되어,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타결하는 데 참여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의 타당성과 방향, 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선생이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한 현실의 동기, 의도는 좌우합작으로써 국내 정치세력을 통일한 자주력을 가지고 남한의 미군정으로부터 자주행정권을 획득하려는 ‘자율통일정부수립론’에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협상하여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하였다. 선생은 반탁노선에 서서 미군정과 불화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미군정과 협조하여야 하며, 미소협조가 한국독립의 전제가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좌우의 정치세력이 대립을 넘어서 통일·합작해야만 민족 통합·통일이라는 한민족의 대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나마 미소대립의 실마리를 제거하여 미소협동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다급한 현실성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선생은 좌우합작운동의 의의를 통합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한민족 내부의 과제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좌우합작운동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라는 현단계 세계사의 모순을 지양하는 새로운 이념·주의를 창안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인류에게 제시하는 사명을 띤 막중한 실험이며 지향이라고 본 것이다. 선생은 1946년 12월 발족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좌우합작의 부산물로 인식하여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 1947년 2월 허울 뿐인 민정장관에 취임한 것도 미군정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율통일정부수립’을 관철 시키려는 좌우합작운동의 연장이었다.

이후 1950년 5월 선생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평택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곧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9월 북한군 보위부에 연행되어 납북되었고, 1965년 3월 1일 75세를 일기로 평양에서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윤헌 尹灌(1856 ~?) 문신

본관은 파평이며 자는 원장(元鑿), 호는 황제(慢濟)이다. 영구(營久)의 이들로 영신(榮信)에게 입양됐다. 1885년(고종 22) 문과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해 이듬해 규장각 직각이 됐으며, 서장관에 임명돼 동지사 조병식을 수행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87년 홍문관응교 시강원 겸사서가 됐으며 이어 성균관 대사성 우부승지 이조참판 협판 내무부사 사헌부 대사헌 등을 지냈다. 1896년 나주부 관찰사로 부임했으며 1902년 궁내부 특진관, 시강원 침사가 됐다. 1903년 태의원경이 됐고, 특명전권공사로서 미국에 파견됐다. 말년에 고향으로 낙향해 여생을 마쳤다. 묘는 청북면 토진리 산마루에 있다.

참고문헌-『평택군지』

김상완 金商完(1903 ~ 1942)

1903년 음력 7월 15일 진위군에서 출생했다. 1927년 중국 무순현 장당에서 정의부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했다. 정의부는 일본군 습격, 군자금 모금활동, 독립선전 공작, 친일밀정 처단, 일본관리 암살, 일본기관 파괴 등의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의부는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해 벽동(惠灌) 초산(楚山) 철산(鐵山) 등의 국내 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또한 재만한인을 위해 경제 문화기관을 설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각 부락에 초등학교를 설립해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정의부는 흥경현(興京縣)에 흥화중학(興和中學) 유하현에 동중학(東明中學)을 설립했으며 혁명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화성의숙(華成義塾)을 설립하고, 기관지로 「전우(戰友)」, 기관신문으로는 『대동민보(大同民報)』를 발행해 재만한인의 항일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농민조합과 농업공사를 설립해 황무지를 매입하고 개간한 후 항일독립운동가 가족을 정착시켰으며 무기를 구입해 국내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1929년 4월 정의부가 신민부(新民府) 참의부(參議府)와 함께 국민부(國民府)로 통합되자

국민부에 소속돼 독립운동을 했다. 국민부는 재만한인의 치안유지와 단일자치기관 실현 및 한국 중국 간 농지 소작문제 해결과 교육 사업에 주력했다. 국민부는 각 촌에는 서당을, 각 구에는 소학교를 지방에는 중등학교를 설립하고 홍경현 왕청구문(汪淸灌門)에는 남만학원(南滿學院)을 설립 동인지로 봉화, 기관지로는 『조선혁명』 등 각종 간행물을 발행해 재만한인의 항일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1932년 경 일제에 체포돼 같은 해 7월 27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34년 5월 출옥했다. 출옥 후 조선혁명군 대원으로 일본군과 교전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삼양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41년 가을 귀국했으나 병환으로 인해 1942년 5월 사망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참고문헌 - 「평택시독립운동사」,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4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김용성 金容成(1894 ~ 1954. 이명 용성 溶成)

1894년 9월 13일 진위군 오성면 학현리 443번지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한문을 수학했다. 26세에 서당의 한문교시를 역임했다. 그는 일제 무단통치를 인식하고 평소에도 항일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있었다. 1919년 4월 1일 오성면 안화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이사필 李思弼, 공재록 孔在緣 등과 함께 독립 만세운동을 계획했고, 같은 해 4월 3일 밤 오성면 학현리 봉오산에서 주민 10여 명과 봉회를 올리고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체포됐다. 1919년 5월 20일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았다. 같은 해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광복 후 1990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참고문헌 - 「평택시독립운동사」,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4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이병헌 (1896 ~ 1976)

1896년 현덕면 권관리 455번지에서 출생했다. 보성전문대 법과생이던 이병헌은 1919년 1월 중순경 손병희의 지령으로 비폭력 - 대중화 일원화의 독립운동 3대 원칙을 기록해 동지들에게 전달했다. 2월에는 천도교 교단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 5천원을 인출 이승훈에게 전달했다. 2월 27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돕고 이를 비밀리에 천도교 교당으로 운반한 이후 전국 각지에 배포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경성 종로의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태화관 별실 6호에서 대기하던 청년 대표 6인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이병헌은 33인의 상황과 탑골공원에 운집한 군중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다. 3월 5일 남대문역 앞에서 전개된 시위운동에도 참여해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주도했다. 이후 일제에 의해 체포된 민족대표 33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 했다. 또한 경기도권 독립만세 시위에 관여했다. 독립 의지를 설파하다가

3월 16일 수원 북수리 천도교 사건 때 중상을 입고 화성군으로 피신해 송탄평택지역의 학생들과 연락을 취했고 만세 시위운동을 고취했다. 1945년 해방 이후 경찰전문학교 총무과장과 경찰대학장 및 행정신문사 사장, 국사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제 2, 3, 4대 선거에서 평택지역 에서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 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제6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된 이후 정계를 은퇴했다. 1959년 「3.1독립 운동 비사」를 집필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93 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참고문헌 - 「평택시독립운동사」,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4.

「독립유공자 공훈론」, 국가보훈처

장석진 張碩鎭(1874 ~ 1967)

본관은 덕수, 자는 원대(元大). 호는 지곡 흥섭이다. 1874년(고종 11) 갑술생으로 문장과 서예가 출중해 인근에 명망이 높았다. 교육에도 큰 관심이 있어 자기 집에 무료사숙을 세우고 이를 개방해 많은 후학을 육성했다. 그는 1967년 향년 93세 고령으로 별세했다. 평택 충훈탑 비명에 그의 필치가 남아있다.

참고문헌 - 「평택시사」

황노식 黃魯載(1881 ~ 1945)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여태 떠泰이다. 오성면 양교리에서 좌찬성을 지낸 상산군 효원孝源14세 손으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충효예가 돈독했고 성장해서는 교육에도 특이한 관심을 가졌다. 3·1 운동 당시에는 동리사람을 인솔 하고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고종이 죽자 초막을 마당에 깔고 망곡했고‘ 3 년의 복상服喪을 마쳤다고 한다. 또한 부모님 봉양을 성심으로 했다. 사대의 예도를 엄히 여기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일부 학자 간에는 기호지방의 예문가라 칭했다. 1943년 가뭄으로 인한 대흉작으로 마을사람들이 굶주리자 자기 집 비축미를 풀어 구민했고 공공사업비 부담은 언제든지 자청해 많은 비용을 납부했다.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선대로부터 집안의 일을 해왔던 사람이 나이 들어 괴질에 걸려 찾아오자 그를 사랑방에 기거하게 하고 몸소 자신이 병간호를 했다. 그는 소생했지만 노식은 병을 얻어 회복하지 못했다. 말년에 자기 집에 한문서당을 차리고 9년 간 자비부담으로 운영했고 신흥학원을 설립해 빈한한 인근 동민들에게 신학문을 배우게 하는 등 많은 후 배 를 양성했다. 그는 ‘적선지기에 필유여경이란 말과 ‘유재능이무근성 이면 반불여무재능이유근성 (反不如無才能而有剛成)이란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후손들에게 늘 강조했다.

참고문헌 - 「평택시사」

대한제국기 계몽운동

▷이범철(진위소학교/홍학회)

▷윤대선

▷고제항

▷이병철(마두리 사숙)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서태정 평택지역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동학과 기독교 등의 유입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20세기 초반 경부선 개통에 따라 상업중계지로서 성장하는 주요한 계기였다. 철도 개통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근대 도시 중 하나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급변하는 시대상을 직접 목격·체험하는 현장이었다. 이곳 최초의 공립학교인 진위소학교는 1898년 사립으로 설립되어,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1899년 공립화되었다. 설립자인 이범철은 신문과 잡지, 열국사기 등을 통해 조선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두루 인식하였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방책은 근대교육 진흥임을 강조했다. 이는 의무교육 시행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학교 운영에서 파생되는 재정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홍학회를 조직하였다. 근대교육운동 실천을 위한 장기적인 방책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주민들 또한 시세변화와 더불어 근대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상황이었다. 학교 유지를 위한 자발적인 모금과 유지회 결성 등은 이를 반증한다. 근대교육에 대한 열망은 사회적인 책무로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사립교육기관은 보통소학교 과정 외에도 사범양성학교·노동야학회·강습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1906년 고종의 ‘사학설립 조칙’ 반포 이후 전현직 지방관들은 사립학교설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등 일제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근대교육은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이자 국권회복 일환임을 의미한다. 1907년 3월 평택군 주사 박준화와 진위공립소학교 교원 윤대선의 국채보상운동 참여에 대한 격절권고는 경쟁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모금자는 전·현직 관료나 유림·계몽운동가뿐만 아니라 여성·학동·상인·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특히 학동들은 저녁 끼니를 아껴 의연했으며, 단체조직이 전무했던 여성 참여도 두드러졌다. 이는 민중들의 각성과 현실인식 심화로 이어졌다. 경험적인 산물은 ‘사회적인 책무’를 자각하는 주요한 계기였다. 사립학교 설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은 부국강병을 위한 문화계몽운동이지만 ‘국권회복’을 추구하는 시발점이었다. 평택지역 학교 설립의 주체자 중 국채보상운동 참여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학회의 발기인인 진위군수 백남규와 이범창·이범철과 진문소학교의 교원인 고제항, 마두리 사숙의 설립자 이병철도 국채보상 모금에 참여하였다. 이는 학생들 참여와 일반 민중들의 각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운동의 참여는 당시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다. 계몽운동을 주도한 계층의 차후 행방은 대부분 모순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기보다 원만한 타협을 추구하였다. 진흥의숙 설립자 이범창은 대동학회 회원, 진위군수 김영진은 총독부 중추원 참의까

지 올랐다. 이들은 사회진화론 영향으로 다양한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문명개화론에 매몰되어 약육강식을 현실적인 사회질서로서 수용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이는 대한제국기 계몽론자의 인식 한계이자 계몽운동이 지닌 한계점이었다.

국악교육 지영희 (평택신문, 2017년 2월 17일)

1909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서 출생한 근대 민족음악의 아버지, 지영희 (본명 지천만) 선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 보유자로 한국의 국악을 체계적으로 완성하고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에 이바지 한 평택의 대표적 문화인이다. 평택시청 블로그 ‘희망평택’과 경기관광공사 홍승택님이 소개하는 ‘평택이 낳은 ‘민족음악 수호영웅 지영희’ 선생은 세습무 명인인 무속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무속인은 천민계급으로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철폐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여파로 굿판에서 벗어나 마당놀이 판으로 공연터를 옮겨 갔으나 초기, 천대와 멸시는 여전했다.

지영희 선생은 어려서부터 조선 국악의 대가인 조향련에게 호적, 정태신에게 양금, 지용구에서 해금, 양경원에게 피리, 김계선에게 대금 풍류, 방용현에게 대금 산조와 풍류, 최군선에게 농악, 오덕환에게 무용 장고, 박춘재에게 경기소리와 서도소리, 신쾌동에게 거문고 산조, 김상기에게 거문고 풍류를 배워 민족음악 집대성의 기초를 쌓은 민족 음악천재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조선음악의 전승을 위해 최승희 무용단, 한성준 조선음악무용단, 조선음악연구소, 경성방송국, 조선국악 단체에서 활동하며 국악 대중화에 앞장선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국악 체계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7년간 전국을 돌며 구전 민요를 채집해 악보를 체계화하고 국악 교육을 체계화 했다.

1963년에는 파리 국제 민속 음악 예술제에 참석, 1973년 한국인 최초 카네기홀 공연 등 민족음악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지영희 선생은 민족음악에 기여한 여러 업적에도 불구하고, 유신정권의 무속철폐문화와 ‘국악협회’의 일방적 제명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각광받지 못하고 멀리 타국 하와이로 가 말년을 보내다 1980년 숙환으로 타계하고 그는 잊혀졌다.

평택은 경기 남부의 평야로 농업지역이고 충청도 아산, 당진과 연결되는 아산만의 바다를 품고 있어 두레소리(농요)와 뱃소리(어로요) 그리고 상여소리(장례요)가 잘 발달해있다. 이러한 자연적 민속음악 발달 요건과 민족 음악 영웅인 지영희, 가야금 명인 성금연 (지영희 선생의 부인) 그리고 평택민요의 거장 최은창 명인의 명성을 이어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평택시 여러 국악인과 문화 예술인 노력의 결과로 웃다리 평택농악전수회의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영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택시는 현덕면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소리터에 2015년 6월 ‘지영희국악관’을 건립해 유품을 정리, 전시하고 각종 국악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 남부 및 충청 아산을 연결하는 농업지역의 중심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 음악의 메카 평택의 얼을 되살리고, 지영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평택 지영희 전국 민속음악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영희 선생의 정신을 계

승한 선생의 고향 포승읍 내기초등학교의 ‘지영희 국악 관현악단’과 평택별 농업 중심지역인 오성면 오성중학교 평택농악 동아리 ‘늘품소리’팀은 전국 대회 농악부분에서 상을 휩쓸고 평택의 얼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낳았다.

이는 평택시민의 민속음악을 통한 정신문화 함양에 매우 고무적인 일로 지영희 선생과 평택시민에게 그의 업적에 대한 숭고한 표상이 되고, 평택의 민속문화인에게 자긍심과 평택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뿌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평택의 민족유산에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평택시 공재광시장은 그의 영혼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와 평택시민에게 민속음악 계승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하와이에 있는 지영희의 유해를 소리터 내로 모셔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영희국악관의 2017년 예산이 삭감 돼 평택시 국악예술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시 문예관광과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지영희국악관을 효율적으로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시민의 근본정신 평택 농악, 평택민요의 지속적인 전승과 평택호 한국소리터, 지영희국악관이 한국 민속음악의 성지로우뚝 설수 있도록 문화체육부, 경기도, 평택시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장 시도의원, 국회의원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토론〉

2017 하반기 평택학 학술포럼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토론

좌장 - 오중근 / 평택향토사연구소 부소장